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 16쪽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
28, 32쪽

집사가 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 친12쪽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49쪽





사로 나온 영화는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 [였으며],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교리와 성약 135:3)던 조셉
 스미스의 생애를 상세히 보여 준다.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 16쪽을
 참조한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원화: 보이도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라셀 엘 벨스, 달린 에이처 옥스, 엠 라셀 벨러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무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리처드 엘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빅터 디 케이브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란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이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새나 버틀러,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알 발 존스, 캐리 카스텐, 앨빈 레빈, 샬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새라 알 포터, 제니퍼 로즈,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라, 채트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김벌리 웹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슬린 하워드, 도닉스 카터, 타드 알 피터스,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유크

배우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 483호, 제 43권, 제 6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서모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름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June 2006 No. 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영의 음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8 복음의 총만함: 아담과 이브의 타락
- 10 복음 고전: 선지자의 특성 **휴 비 브라운**
- 16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사랑을 실천하고 공평한 사람들을 보살핌
- 32 정숙함은 중요하다
- 43 후기 성도의 소리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김벌리 웹**
딱 오 분만 더 **일레인 브라운 프레슬러**
작은 결정, 영원한 축복 **빅토르 피노 푸엔테스**
춤추는 커플의 재결합 **쿠르트 스타트너**
- 48 애독자 편지

49 가족을 지원함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가족을 지원함

- 50 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56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
엘 톰 페리 장로
- 61 부모는 거룩한 의무를 지닙니다 **보니 디 파킨 자매**
- 66 천국의 가정, 영원한 가족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 7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가정의 밤을 위한 제안

다음 제안은 여러분이 리아호나를 사용하여 만이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특성", 10쪽:
가족 중 두 명에게 범용가역을 하도록 부탁하고 이 기사의 질의 응답 부분을 읽게 한다. 참된 선지자의 특성에 대한 휴 비 브라운 회장의 목록을 보여 주고, 가족에게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그러한 속성들을 보여 주었는지를 증인 역할로서 이야기하게 한다. 기사의 마지막 세 단락을 읽고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질 의 응답", 22쪽: 가족과 함께 물문경이 어떤 책임지를 설명하고 좋아하는 구절을 나누며 그 구절이나 장을 읽게 함으로써 물문경을 전하는 연습을 한다. 가족 중 물문경을 받는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한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가족이 함께 토론할 수 있다.

"신성한 것에 대한 감각", 28쪽: 제각기 다른 형태의 웃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 준다. 어디에서





원근상하
이경민 디자인
이비진 디자인
송태영

첫번째 시현, 루시 서스턴 키니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7)

청소년

- 7 두 개의 이름을 달다
진 브라이스 라구아
- 21 포스터: 미룸
- 22 질의 응답: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몰몬경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 26 짧은 메시지
책 속의 답 앤드류 콘퍼, 28 신성한 것에 대한 감각
마일스 티 튜에이슨
나의 전환점 엘스위스 질레트
- 28 신성한 것에 대한 감각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37 알고 계십니까?
- 38 와서 배우고 즐기세요 폴 밴던버그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선교 사업에 대해 감사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계명을 지키라 린다 매글비
- 친6 친구가 친구에게: 확고한 결심
이 이스라엘 페레스 장로
- 친8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선지자의 순교
- 친10 버터 접시 패트리시아 알 존즈
- 친12 아론 신권과 청남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2세
- 친15 심심풀이: 경전 인물
- 친16 플란넬 보드 일요일 상자

친2 선교 사업에 대해 감사함



이번 호에 숨겨진 정의만 반지를
찾으면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때 받는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표지

앞: 사진 촬영, 존 루크. 뒤: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및 존 루크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루스 손월드

그런 옷들을 입어야 하는지 묻는다. 이 기사를 활용하여 "주일날 입는 가장 좋은 옷"의 정의를 내리고 적절한 옷차림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 주는지 설명한다. 가족에게 거룩한 장소들을 나열하게 한다. 성스러운 곳에서 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확고한 결심**", 친6쪽: 이 이스라엘 페레스 장로가 묘사한, 결심을 굽히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지킨 두 상황에 대한 역할극을 한다. 각각의 역할극을 한 후에 가족에게 페레스 장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맞춰 보게 한다. 이야기를

마치고, 페레스 장로의 조언을 활용하여 가족이 앞으로의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지금 결심할 수 있는 것들을 토론한다.

"**버터 접시**", 친10쪽: 가족 한 명에게 백 원짜리 동전이나 그 밖의 작은 물체를 사용하여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게 한다. 버터 접시 이야기를 하고 왜 그 접시가 에머에게 그토록 큰 의미가 있었는지 토론한다. 십일조의 법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간증을 나눈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 = 친구들	순종, 친4, 친6쪽
가르침, 1쪽	십일조, 친10쪽
가정 복음 교육, 6쪽	이담과 이브의 타락, 8쪽
가정의 밤, 1쪽	아론 신권, 친12쪽
가족 역사, 46쪽	에텐 동산, 8쪽
경전, 친15쪽	예수 그리스도, 8, 44쪽
계명, 친4 쪽	일요일 상자, 친16쪽
계시, 2, 43쪽	정속함, 28, 32쪽
나의 복음 표준, 친4쪽	조셉 스미스, 10, 16, 친8쪽
모범, 45 쪽	존경, 28쪽
물문경, 22, 26쪽	지혜의 말씀, 친6쪽
미룸, 21쪽	집사, 친12 쪽
방문 교육, 25쪽	청남, 친12쪽
복장, 28, 32 쪽	초등학교, 친4쪽
사랑, 25쪽	하나님에 대한 의무, 친12쪽
선교 사업, 26, 친2쪽	회개, 7쪽
선지자, 10쪽	회복, 10, 16쪽
성신, 2쪽	회원 선교 사업, 22, 38쪽
성전, 38쪽	
세미나리, 38쪽	
순교, 친8쪽	



영의 음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저는 거룩한 것들을 가르쳐야 할 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변하고 있으며 제가 알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절과 훌륭한 것들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어두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장래의 희망입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¹ 영의 음성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나니 ...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로 나아오느니라”² 어떤 사람들은 보다 의미있는 삶을 찾고자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살리는 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³ 참으로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⁴

기쁨은 은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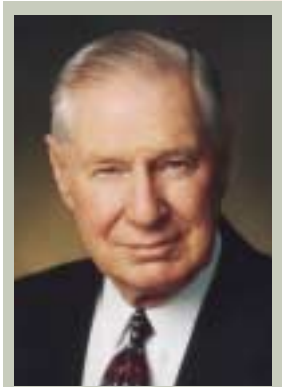
혹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답했습니다.⁵ 우리가 구하는 기쁨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항구적인 내적 기쁨입니다.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나.”⁶ 이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저는 살아 있는 증인으로서,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영에 귀를 기울일 때 참으로 기쁨이 온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니파이가 말했듯이 “행복하게”⁷ 사는 것을 배웁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세계 곳곳의 많은 나라에서 회원들은 저의 간증에 그들의 간증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은사로서 화평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의 약속을 확인해 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은사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목소리도 듣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세상에 [영의 소리에 견줄 만한] 소리의 종류가 많”다고⁸ 말했습니다. 영의 소리는 항상



저는 살아 있는 증인으로서,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영에 귀를 기울일 때 참으로 기쁨이 온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존재하면서도 조용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⁹ 사탄은 다음과 같은, 다수의 크고 끈질기며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음성으로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아 버리려 합니다.

-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느낌을 불러 일으키는 불평의 음성
- 도전과 일을 싫어하는 불평의 음성
- 관능적인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의 음성
-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는 달콤한 음성
- 지적인 교양과 우월을 자칭하는 지성의 음성
- 육신의 팔에 의존하는 거만한 음성
- 우리를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아침의 음성
- 희망을 짓밟는 냉소적 음성
- 쾌락의 추구를 부추기는 즐거운 음성
-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쓰며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것에 수고를 들이도록 유혹하는 상업적인 음성¹⁰
- 극도의 흥분과 쾌락의 갈구를 불러 일으키는 광란의 음성. 저는 마약이나 알코올이 가져오는 극도의 흥분이 아니라 단지 스틸을 만끽하기 위해 죽음에 도전하는 위험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공격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킬지,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 수많은 음성이 끊임없이 퍼부어집니다. 손만 내밀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텔레비전 채널, 컴퓨터 모뎀, 위성 수신기, 통신 네트워크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보호와 평온의 장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사악하고 나쁜 많은 것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시인 티에스 엘리엇의 말이 떠오릅니다. “지식 가운데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정보 가운데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¹¹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은 충실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손수레를 끌고 평원을 횡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메리카 미개척지의 광야에서 죽었을 때 그의 유해는 땅에 묻히고 손수레는 서부로 여행을 계속했지만 살아남은 유족들은 사랑하는 자의 영원한 영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라는 광야에서 영적으로 죽는다면, 그 희망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복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바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세상에 의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원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축하거나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성급한 욕망은 그들을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만듭니다. 물론 정은 사탄의 유혹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익을 얻으려 함
- 인간을 지배하는 권능을 얻으려 함
-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 함
- 육욕 및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려 함¹²

이것이 사탄의 책략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그들의 눈이 멀게 되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느니라.”¹³ 사탄은 우리의 시력을 희미하게 하여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막을 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년)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킬 경우 그분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 문제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눈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눈에 먼지를 뿌려 세상의 것으로 눈멀게 합니다.”¹⁴

의로운 음성을 들음

어떤 음성을 듣고 믿어야 할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시사하는 바는 엄청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도덕적인 의지를 현명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아멜레카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말해 줍니다. “선한 것으로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오니라.”¹⁵ 매 순간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주께로부터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순간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오는 것과 악마에게서 오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순간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둘째,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 데이비드 벤 구리온 수상은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수립자인 레온 트로츠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트로츠키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¹⁶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¹⁷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맞닥뜨리는 모든 것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좀 더 의로웠던 일부 니파이인들은 그들 가운데 구주가 나타나실 것임을 알리는 음성을 듣기 위해 주의를 집중해야 했습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고, 그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 들은 음성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다. 그것은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 음성도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은 작은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중심까지 꿰뚫는지라, 그들의 몸에 떨리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으니, 참으로 그 음성은 그들의 영혼에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더라.”¹⁸ 그들은 두 번이나 그 음성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이를 듣고자 그들의 귀를 여니, 그들의 눈은 그 소리를 향하였고, 소리가 나는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주목하였더라.”¹⁹ 영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도 귀를 열어야 하며 신앙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늘을 곳곳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 간증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계획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걸을 때,

우 리가 들은 음성을 선택하기 위한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영의 음성을 듣고 따르십시오. 이 해결책은 시끄럽고, 설새없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화평을 찾게 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시켜 줄 영적인 경험을 우리 마음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경전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는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²⁰ 주님은 또한 경전에서 그분의 말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나의 음성인 연고라. 이는 이것이 나의 영으로써 너희에게 주어짐이요.”²¹

우리가 들을 음성을 선택하기 위한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영의 음성을 듣고 따르십시오. 이것은 고대의 해결책으로 영원한 해법이지만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는 사회에서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세상에서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해결책은 시끄럽고, 실재없고, 빠르게 돌아가고, 화려하며, 노골적인 것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조용히 평화롭고 은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여러분의 또래 친구들이 육체적인 자극을 구할 때,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기억할 만한 가치도 없는 하찮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이는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강렬하고 변화무쌍하고 새로운 것이 없으면 쉽게 따분해 하는 세상에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오래된 메시지입니다. 이 해결책은 보이는 것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걸어갈 것을 요구합니다.²² 인류의 대부분이 단지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물질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영의 속삭임에 반응하는 방법, 또한 사탄이 만들어 내는 잡음을 걸러 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조화를 이룰 때,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²³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²⁴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²⁵입니다. ■

주

1. 교리와 성약 50:1.
2. 교리와 성약 84:46~47.
3. 고린도후서 3:6.
4. 요한복음 6:63.
5. 갈라디아서 5:22~23.

6. 니파이후서 2:25.
7. 니파이후서 5:27.
8. 고린도전서 14:10.
9. 이사야서 32:17.
10. 니파이후서 9:51.
11. “Choruses from ‘The Rock,’”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1930년), 96쪽.
12. 니파이전서 22:23 참조.
13. 교리와 성약 78:10.
1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2002년), 30쪽.
15. 욥나아서 1:25.
16. Academy of Achievement, “Interview: Shimon Peres”, 참조. Internet, <http://www.achievement.org>.
17. 교리와 성약 46:7 참조.
18. 제3니파이 11:3.
19. 제3니파이 11:4~5 참조.
20. 교리와 성약 68:4.
21. 교리와 성약 18:35.
22. 고린도후서 4:18; 5:7.
23. 이사야 30:21.
24. 교리와 성약 59:23.
25. 교리와 성약 14:7 참조.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라디오를 틀어 몇 가지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춘다. 어떤 방송국은 소리가 잘 나오고 어떤 방송국은 잡음이 많이 나음을 지적한다. 잡음을 세상의 소리에, 맑은 소리를 영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춘 것에 비유한다.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파우스트 회장의 권고를 나눈다.

2. 영의 음성을 좀 더 잘 듣기 위한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파우스트 회장이 언급한,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11가지 음성 중 몇 가지, 또는 그가 가르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네 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가족에게 영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랐던 경험을 서로 나누게 한다.

3. 가족에게 파우스트 회장이 인용한 다음 성구를 읽게 한다. 요한복음 6:63; 고린도후서 3:6; 교리와 성약 50:1, 84:46~47. 그들에게 이 성구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한다. 기사에서 영의 음성을 따름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읽는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느낀 영의 권능에 대해 간증한다.

두 개의 이름을 달다

구주를 대표하기 위해 나는 아버지와 화해해야 했다.

진 브라이스 라구아

교 회에 들어온 지 일 년 후,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지원서를 쓰기 위한 접견 도중 감독님은 내게 이렇게 질문했다. “누군가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 사이의 나쁜 감정은 무시하고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자신이 합당하며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몹시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와 화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영혼을 괴롭혔다.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 결코 염려하는 법이 없었다. 우리는 모두 더 이상 아버지와 얘기하지 않는 지점까지 왔다. 아버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일말의 후회도 없이 “돌아가셨어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내 말을 들으려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과 화해를 시도해야 할 이유가 정말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뵈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약 36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다. 처음 한 시간 동안 우리의 대화는 모욕과 상호 비방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로 가득했다. 분노에 가득 찬 말에도 불구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내 의도는 강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우리는 결국 다섯 시간 후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끝을 맺었다.

많은 눈물을 흘린 후, 아버지와 나는 마침내 그토록 오래도록 서로를 화나게 했던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포용할 수 있었다. 끝으로 아버지께서는 아프리카에서 하는 대로 화해의 상징인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지고 와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잔 속의 물을 쏟아 버리셨다. 그런 후 아버지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며 자신의 실수에 대해 회개하기로 굳게 다짐하신 후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는 서로 회개하게 해 준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도록 영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한다. 아이보리 코스트 아비장 선교부의 선교사로 봉사할 때 나는 두 개의 이름, 즉 아버지의 이름인 라구아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달고 다닐 수 있어서 행복했다. ■



아담과 이브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교리에 대해 살펴보는 연재 기사.

대부분의 기독교는 타락이 비극이었으며 만약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불멸의 행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후기의 선지자에게 계시된 진리는 타락은 비극이 아니며 타락이 없었다면 아담과 이브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타락은 영원한 행복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단계였다.

죽음이 없다면 후손도 발전도 없음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만일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머물렀을 것이라. ...

“또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머물렀으리니, 비참을 알지 못하매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하매 선을 행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보라,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2~25)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한 후,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이브는 그들의 범법으로 가능하게 된 기회를 기뻐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모세서 5:11)

열매를 취함으로써 필멸이 오게 되었고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며, 아담과 이브는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타락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엘마서 42:8) “그러므로 이 생은 시험의 상태요”, 배우고 성장하고 회개하고 죄를 극복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엘마서 12:24)이다.

범법, 죄가 아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이 타락에서 이브가 맡은 역할을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며 죄를 지었다고 아담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범법이었으나 죄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담과 이브가 해야만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에 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죄와 범법의 차이점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개조 제2조의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의 신중한 표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법에서 보면 차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쁜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또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는 등의 기타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타락을 초래했던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쁜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범법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언제나 어떤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차이가 타락의 상황에서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²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범법 때문에 그들은 특정한 결과에 직면해야 했는데 그 중 두 가지가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이었다. 아담과 이브에게 육체적 사망은 그들의 지상 생활이 끝났을 때 왔다. 그러나 영적 사망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단절되면서 일어났다.(엘마서 42:9)

원죄

우리의 최초의 부모의 범법의 결과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들은 타락으로 인한 특정한 결과를 물려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추방되어 ... 세상에 육체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 [기독교인들은]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는 원죄로 더럽혀져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앙개조 제2조는 이 어리석고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³라고 스미스 회장은 설명했다.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들은 타락으로 인한 특정한 결과를 물려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어린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모로나이서

8:12) 있게 되며 회개하거나 침례 받을 필요가 없다.(모로나이서 8: 8~11)

동산에서의 계명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창세기 1:28 참조)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계명(창세기2:17) 있었다. 이 두 계명은 아담과 이브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아담에게 그가 동산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먹고 죽음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⁴ 이러한 난제에 직면한 아담과 이브는 죽음, 즉 육체적 및 영적 죽음을 택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과 후손들이 지식과 경험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

주

1. *Doctrines of Salvation*, comp. 브르스 알 맥콩키, 3 vols. (1954~1956년), 1:114~115.
2. “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3쪽.
3.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년), 1:82.
4. *Answers to Gospel Questions*, 4:81.

선지자의 특성

휴 비 브라운 회장(1883~1975년)

휴 비 브라운은 1883년 10월 24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리디아 제인과 호머 맨리 브라운에게서 태어났다. 그가 15살이었을 때 가족이 캐나다로 이사했다. 1908년 6월 17일, 그는 찰스 오 카드(캐나다 앨버타 카드스톤의 설립자)의 딸이자 브리검 영의 손녀인 지나 영 카드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여섯 명의 딸과 두 아들의 부모였다. 브라운 회장은 법조계에서 종사했는데, 처음에는 캐나다에서, 이후에는 미국에서 활동했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캐나다 육군 소령으로 해외에서 복무했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종교 교수와 재향 군인 관련 업무 책임자로 일했다. 1953년, 캐나다 리치랜드 정유 주식 회사 사장으로 일하는 동안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1958년 4월 10일, 그는 사도에 성임되었으며, 1961년 6월 22일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보좌로 지시되었다. 그는 1970년 1월 18일 맥케이 회장이 별세할 때까지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으며, 맥케이 회장의 별세와 더불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그는 1975년 12월 2일에 별세했다.

저는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시대에 회복되었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의 지시로 조직된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과 교회에 충성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9년, 제가 영국 런던에서 나누었던 한 대화에 대해 말씀드림으로써 제 의도를 더 빨리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원 의원이며, 이전에 영국 대법원 판사였던 저명한 신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신사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그러한 주제들이 “영혼의 고민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업과 법률, 정치, 국제 관계와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종교에 대해서도 종종 토론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세계 전화를 걸어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복음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곧



사람은 오직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속삭임을 통해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귀하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임박한 전쟁과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되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그의 말은 예언처럼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그의 사무실로 갔을 때, 그는 제가 그에게 말해 준 몇 가지 사실이 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물론이즘에 대한 개요를 작성해서 ... 법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듯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하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사렛 예수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논리와 증거에 대해 훈련을 받은 캐나다의 법률가이자 변호사이신 분이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가 내게 조셉 스미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귀하가 최소한 3일 동안 개요를 준비하셔서 내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 귀하에게 질문하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착수하여, 발견된 증거신문 절차(examination for discovery), 즉 고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주장을 심리하고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쌍방이 만나는 간단한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법정에서 소요될 시간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저의 “믿을 수 없는” 신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된 기반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 후에 있었던 세 시간 동안의 대화에 대한 함축되고 요약된 내용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서술보다는 질의응답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의원님이 기독교인이라는 전제 하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을 믿으신다고 보는데요.”

“물론입니다!”

“기도를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한 제 믿음이 믿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그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야곱, 조셉, 그리고 이후의 선지자들에게도요?”

“저는 그분이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의원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러한 관계가 예수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 끝났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오, 그러한 교통은 그때 절정, 즉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의원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소의 사울이라 불린,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어떤 율법사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사울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으니까요.”

“그렇다면 ... 저는 의원님께 그것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표준 절차였다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러한 절차는 기독교 시대의 첫 세기가 지난 후에 곧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권능을 잃으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물론 신성모독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의원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인간의 일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그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한다면, 제가 보기에 가능하며 유일한 답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고, 너무나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임박한 전쟁을 생각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세계 역사상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귀하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내가 “선지자의 특성”이라고

부른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는 다음 특성들에 의해서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구별해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가.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대답하게 주장한다.

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고귀한 메시지를 가진 고귀한 사람일 것이다. 테이블에 뛰어오르거나, 죽은 자로부터 속삭임을 듣거나, 투시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적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리고 대중의 의견에 양보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다.

라. 그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말한다면,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새롭고 시대의 가르침에 역행한다고 해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선지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논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이다.

마. 그런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및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라고 말한다.

바. 그런 사람은 이사와와 에스겔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며, 그것들은 이루어진다.

사. 그는 자신의 시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니엘, 예레미야 및 다른 사람들처럼 종종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아. 그는 베드로, 바울 및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가 지지하는 대의를 위해 박해를 견디고, 필요할

“브라운 씨, 세계 역사상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귀하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는 앉아서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나는 귀하의 교회 회원들이 귀하가 말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충분한 용기와 신앙을 갖고 있다.

자. 그런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사악함을 꾸짖는다. 그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박해당하지만, 후세대 사람들, 즉 그를 박해한 자들의 후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다.

차.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초인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전한 메시지와 업적의 결과는 선지자로서 그의 부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복음 7:20]

카. 그의 가르침은 경전과 완전히 일치하며, 그의 말씀과 기록은 경전이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베드로후서 1:21)

저는 여러분에게 요점만을 말씀드렸을 뿐이며, 나머지는 여러분이 채우고 덧붙여서 다른 선지자의 업적과 고매함을 통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0년 이상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저는 ...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이래로 선지자들이 늘 했던 주장,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처럼 살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계시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시를 이 세상에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가 일어난 많은 일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예언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요한계시록 19:10] 조셉 스미스가 예수에 대한 증언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예언의 영을 갖고 있었던 것이며, 그가 예언의 영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고대의 사도들처럼 주님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간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남긴 사람의 이름을 들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초인적인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는 몰몬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초인적인 일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대 미대륙의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써 보시라고 청합니다. 그가 했던 것처럼 아무런 참고 자료도 없이 써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에 54장의 전쟁 기사, 21장의 역사적인 내용, 55장의 시현과 계시를 포함시키고, 시현과 예언에 관해 쓸 때 여러분의 기록은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리와 권고에 관해 71장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은 모든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해 21장의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그가 말하고 행동했다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그에 대해 기록하는





모든 간증이 신약전서에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런 일을 해 보시겠습니까? 또한 반드시 언어의 상징, 비유, 은유, 해설, 설명, 묘사, 수사, 서사시, 서정시, 논리 및 비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물론경을 번역한 사람은 여러분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젊은이였지만, 그는 그 책을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수정한 곳이 있다고 해도 아주 적게, 구술해서 받아쓰게 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이상,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과 학자들이 성경을 통해 물론경을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 애썼지만, 조셉이 쓴 내용 중 어떤 것이라도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누구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다른 초인적인 일들을 하고자 나섰으며 성취했습니다. 그 중 다음 사항을 열거합니다. 그는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인간에 의해 쓰여진 어떤 헌법, 심지어 미국 헌법도 수정이나 개정 없이 100년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율법이나 규정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착수했으며 이 초인적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시온에 집합시키기 위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을 제정했으며 그 목적을 위해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저는 제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선언하는 사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입증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조셉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거나, ‘그리스도란 없다.’라고 했다면, 혹은 그가 다른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가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저는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를 반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를 내가 선언하노니 ... 나는 그분을 보았으며 그와 대화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러한 사실로 나를 박해합니까?” ...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 판사가 우리의 토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는 앉아서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매우 날카롭고 심오한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며 끝날 때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나는 귀하의 교회 회원들이 귀하가 말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귀하가 내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이래로 이 세상에 온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판사이자 훌륭한 정치가였으며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하는 귀하가 말한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도전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세상에 나타나서 권위 있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말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믿는 몇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성신의 계시에 의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증거와 인용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증거들은 사람이 지적인 확신을 갖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사람은 오직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속삭임을 통해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지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1955년 10월 4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말씀의 편집 및 출판된 버전에서 발췌함.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



세상은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 주 농촌 지역에 있는 가난한 농가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일은 세상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탄생은 오래 전에 예언되었으며, 심지어 아기의 이름이 조셉이라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었다. (니파이후서 3:15 참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나타나신 시현으로 하늘이 열렸을 때 이 무명의 소년은 겨우

14살이었으며, 어린 조셉은 나중에 그의 이름이 “모든

나라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셉 스미스-역사 1:33)

오늘날 그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게 살아 있다. 그의 이야기는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라는 새로운 영화에서 전해진다. 이 장면들은 그 영화에 나오는 것이며, 영화는 현재 세계 전역에 있는 여러 방문자 센터에서 상영되고 있다.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기 전에 아버지께 위안을 받고 있는 어린 조셉(위); 형 알빈의 등에 업혀서(오른쪽); 모로나이가 그의 방에 나타나 있는 동안 지시를 받음(반대쪽); 성경을 공부함(삽입, 반대쪽)







영화는 선지자 조셉의 생애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뿐 아니라 명상적이고 영적인 면(왼쪽)도 보여준다.



아내 에머에게 구애함(삽입, 위 왼쪽); 자녀의 출산 후 에머와 함께 기뻐함(위); 외설적인 말을 하는 간수들을 꾸짖음(왼쪽); 쿠모라 산에서 금판을 받음(아래 왼쪽); 리버티 감옥에서 고통을 받음(아래)



제작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

비범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68분 동안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번 경우에는 장기간의 계획과 열정적인 준비와 기도, 그리고 영화 제작사로부터 일반적으로 받기 힘든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 일이 가능했다.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영화로 제작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도움, 예를 들면 주연 배우들의 배역과 여러 날 동안의 악천후 가운데서 계획된 촬영을 하기로 된 이들 간의 완벽한 날씨 등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그 결과, 인간적인 특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고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묘사하는 영화가 나왔다.

영화 제작에는 신중한 조정과 계획이 요구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촬영은 나부, 뉴욕 주 북부 지역, 오타와 근처의 역사적인 북부 캐나다 마을,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근처의 링컨스 뉴 살렘 빌리지, 미시시피 강, 영국 맨체스터 그리고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 근처의 교회 영화 스튜디오 등지에서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 영화에는 40여 명 가량의 주요 배역이 있다. 100명 이상의 제작진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일부 장면에서는 300여 명에 이르는 지역 배우들이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야외 촬영을 위해서는 많은 현지 주민들이 분장, 미용 등을 돕기 위해 고용되었다.
- 의상은 1800년대 초의 복장을 충실히 재현해 내기 위해 광범위하게 조사되었다.
- 영화는 제일회장단의 지시 하에 교회 시청각 자료부에서 제작했으며, 조셉 스미스의 탄생 200주년 일주일 전인 2005년 12월 17일에 템플 스퀘어에 있는 조셉 스미스 기념관 내의 레거시 극장(Legacy Theater)에서 개봉했다. ■

공개되지 않은 제작 작업에는 제작진, 분장사, 미용사(왼쪽과 오른쪽)의 많은 도움, 나부에서의 겨울 장면을 위한 눈 살포 작업(오른쪽), 스튜디오 무대 위의 비좁은 감방 설치(아래) 등이 포함되었다.



미쁨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
(교리와 성약 60:13 참조)

질 의 응 답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몰몬경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물 문경을 나누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영의 영감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자매님이 각 친구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몬경을 나누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려면 몰몬경 소개를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책에 대한 개요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매님의 친구가 몰몬경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그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미대륙에 살았던 선지자들에게 의해 쓰여진 경전이라는 것을 말하십시오. 자매님은 몰몬경이 우리를 위해 쓰여졌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번역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몰몬경에 대한 자매님의 간증을 전하십시오.

몰몬경을 한 권 나누어 준 후에, 친구에게 읽어 보도록 격려하십시오. 시작하기 위해 몇 구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소개, 제3니파이, 그리고 모로나이서 10장 3~5절을 읽도록 권유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에게 몰몬경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기 위해 영감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몰몬경에 대해 공부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몰몬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친구가 읽기 시작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구절을 제안하고 책에 대한 간증을 나누십시오.

나누어 줄 책이 없을 경우, 친구는 전도 카드나 www.mormon.org를 통해 몰몬경을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 주고 그것이 자매님에게 의미하는 바를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줄 몰몬경이 없을 경우, 친구를 www.mormon.org 로 안내해 주거나 전도 카드를 주십시오. 친구는 웹사이트에 요청함으로써 몰몬경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은 우편이든 선교사든 친구의 요청에 따라 전달될 것입니다.

몰몬경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간증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나누는 일은 중요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책은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간증합니다. 또한 그분의 탄생, 성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부활 및 미대륙 풍요 땅에 있는 의로운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에 짚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며, 입을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그것의 거룩한 기원에 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현재 그 약속을 시험해 봄으로써 그것이 참되고 거룩한 기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1~82쪽)

자매님의 친구에게 몰몬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되라고 권유하십시오.

독자들의 대답



저는 늘 몰몬경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이상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복음 교리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느낀 것과

똑같은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몰몬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이 내 생활과 다른 사람의 삶에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 간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범을

통해서 이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간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셀라 엠, 21세, 모잠비크



언젠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한 권 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책을 줄 때 이 책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쓴 다음 그것을 포장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녀는 즉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 에이, 16세, 브라질

물문경을 나누기가 겁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영의 도움과 인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준 마지막 네 권에는 제가 좋아하는 성구 몇 개(모로나이서 10장 3~6절 포함)에 빨간 색연필로 표시를 했으며, 그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메모 카드를 꽂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을 받게 될 사람들은 출발점을 갖게 됩니다. 500쪽이 넘는 책은 읽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보통 물문경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다른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 책을 주는 사람에게 제 간증을 나눕니다.

레베카 시, 17세, 미국 일리노이 주



먼저 친구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공통점을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는 물문경이라고

부르는 다른 경전을 믿고 있으며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간증해 준다고 말하십시오. 물문경에 대해 말하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 85:11; 이사야 29:11~12; 에스겔 37:15~17; 그리고 요한복음 10:16.

크리스토퍼 더블류, 16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제가 있어 물문경을 나누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경전을 학교 갈 때와 방학 때 늘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물문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는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줍니다. 제 경우에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두 명의 친구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두를 기억하신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마틸드 시, 18세, 페루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일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 이웃과 물문경을 나누는 방법에 관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사람이 그 나름대로 최상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디데이 장로, 칠십인 회장단,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가르침”, 리아호나, 2004년 6월호, 13쪽.



물문경을 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미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담긴 책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줄 때 물문경에 대한 저의 느낌과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 적습니다. 저는 또한 주님께 제 친구가 물문경이 영감 받은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나 비, 15세, 브라질

성경과 함께 물문경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물문경이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것과 두 책이 서로 보완해 준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문경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오신 것과 그분의 백성들을 방문하신 기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친구들을 돕게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캐시 유, 17세, 프랑스

리아호나 및 독자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에게: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 사진(사진을 실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와 함께)과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1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2006년 7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질문

“저는 어떤 실수를 저지른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다시 실수를 범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

사랑을 실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상호부조회 모토와 함께, 각 자매는 그녀의
생활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격려 받는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가족, 워드 및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도록 격려 받는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모로나이사서 7:47: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딜이요.”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종종 사랑을 병자를 방문하거나 궁핍한
자들에게 음식을 전하거나 덜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잉여분을 나누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사실 참된 사랑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남에게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습득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의
미덕이 심어질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

“아마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어떤
범주 속에 집어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노하기보다는 좋은 의도가
있겠지 하고 단순히 생각하거나 조용히
있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차이점과 약점과 단점을
수용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을 때 화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가까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19쪽)

모로나이사서 7:48: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여,
...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행사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가?

앤 시 핑그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저는 앨마가 말했던 것처럼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룬다”[앨마서 37:6]는 것이 진실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작고 단순한 사랑의 일상적인 실천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우리의
확신의 선언입니다. 현재와 영원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대업에 대한 저의
헌신과 그분이 저를 어느 곳에서라도
부르시면 항상 봉사하겠다는 저의 소망을
전합니다.” (“사랑: 한 번에 한 가족, 한
가정씩”,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10쪽)

하워드 더블류 헌테(1907~1995년)

회장: “여러분이 지닌 선을 위한 강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데 공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결점과 슬픔과 병고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통은 우리도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조직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상호부조회 모토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라는 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97쪽) ■



책 속의 답

앤드류 콘퍼, 마일스 티 튜에이슨에게 전한 이야기

“콘 퍼 장로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몰몬경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마세요.” 하는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왔다. 우리의 새로운 구도자인 크리스틴 용은 우리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다.

싱가포르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내 동반자와 나는 크리스틴과 같은 구도자가

있어서 기뻐다. 그녀와 그녀의 언니 사라는 복음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몇 주 간 그들과 복음을 나누는 동안, 그들은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약속을 잡았다.

나는 우리 지부의 선교 책임자인 패트릭 림과 함께 갔고, 동반자는 다른 회원과 함께 다른 약속 장소로 갔다. 림 형제와 나는 크리스틴에게 회개,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에 대해 가르칠 계획이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침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침례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그녀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둘 다 크리스틴이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 영을 구하고자 기도했다.

토론을 하는 동안, 크리스틴은 회개와 침례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림 형제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 가르쳤을 때, 크리스틴은 그녀가 걱정하는 점에 대해 말했다.

“장로님, 전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또 그분이 제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실지 확신이 없어요.” 하고 그녀가 머뭇거리면서 고백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영이 전해 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에 대해 말했지만, 그녀는 성신의 영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녀는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려고 노력했으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가 한 성구가 머리에 떠올랐고, 몰몬경에 있는 성구였지만 나는 그것을 나누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전에 그녀는 몰몬경을 통해 가르치지 말라고 부탁했다. 나는 크리스틴에게 이터서 12장 6절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세상에 보이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받기 전에 시험 받는다고 설명했을 때, 나는 마음에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크리스틴도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간구했다. 그녀도 느꼈다.

“저는 정말 감동 받았어요.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고 크리스틴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게 바로 영이예요, 크리스틴. 영의 느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고 림 형제와 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그 구절을 나누고 더 자세하게 가르친 후에, 크리스틴은 침례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으며 곧 침례를 받았다.

나의 전환점

엘스워스 질레트

나는 벨리즈에서 교회 회원으로 성장했지만 늘 충실한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벨리즈에 있는 최초의 회원들 중 하나였지만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다. 아버지는 일자리도 없는 어머니와 세 자녀를 두고 떠났다.

주님을 믿는 어머니의 신앙은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게 해 주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부양하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는 스스로 간증을

얻어야 했다. 한때 나는 함께 지내는 친구들로 인해 그릇된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보다 멀어지도록 영향을 주었다.

나의 전환점은 교회의 청소년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다. 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영을 보았다. 그것은 내 삶에 독특한 기쁨을 가져왔다. 친구들이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더욱 큰 영을 느꼈다.

선교 사업은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까지는 내 생각 밖에 있는 일이었다. 기도를 드리며 나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권능을 느꼈다. 전에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선교 사업이 내게 있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나는 지부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준비한 후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며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살아 계신 선지자, 선전자, 그리고 계시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로나이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물론경을 읽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받게 될 것이다.(모로나이사 10:3~5 참조) ■

신성한 것에 대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때와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갈 때와 그 외 신성한 때에 격식을 차려 옷을 입습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철심인 회장단

얼마 전에 미국의 다른 주에서 온 청녀가 몇 주 동안 친척과 함께 지내기 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에 그녀는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 그리고 단추를 채우게 되어 있는 가벼운 스웨터로 단장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녀는 스타킹과 구두를 신었으며, 머리는 꾸밈없으면서도 신경을 써서 빗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녀는 젊음으로 가득찬 단아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즉각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나이의 다른 모든 청녀들은 캐주얼한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며, 어떤 스커트는 무릎 위로 한참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커트 윗부분에 겨우 닿는, 꼭 끼는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양말이나 스타킹은 신지 않았습니다. 발에는 커다란 운동화나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새로 온 이 소녀를 보고 자신들의 옷차림이 예배당과 안식일에 얼마나 적절하지 않은지 깨닫고 즉각 좋은 쪽으로 변했으면 하고 누구나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소녀가 그쪽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이 방문한 와드의 패션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대에 대해 신성한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도록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저는 신성한 것을 인식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경건하게 대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다듬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을 표해야 하는 많은 신성한 것들, 즉 경전, 선지자, 우리의 육신, 하나님 가운데서도 저는 신성한 장소와 사건에 대한 경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은 사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에 대해 생각하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신성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해 줄 사람이 필요 없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본질의 일부가 될 것이며, 사실 상당 부분이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요일 옷차림

성전과 집회소는 신성한 공간으로 주님께 헌납됩니다. 각 성전에는 주님께 거룩함-주님의 집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신성한 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를 이러한 건물 내부와 주위에서 경건하게 행동하고 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특정한 차림을 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품위 없는 옷차림이 하나님의 가장 신성한 창조물인 육신을 더럽히듯이, 신성한 때와 장소에서 품위 없거나 부주의하거나 단정치 못한 옷차림과 용모는 주님의 집과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신성함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테네시 주에서 우리 와드 예배당이 강풍으로 피해를 입어 수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일요일 교회 예배를 위해 고등학교 건물을

감각



여

러분은 위대한 후일의 경륜의 시대의 성도입니다. 그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십시오.



사용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 속한 한 회중이 그들의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되는 동안 예배를 위해 같은 고등학교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회중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갈 때 입을 옷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이나 넥타이를 입은 남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왔거나 그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성, 또는 캐주얼한 바지, 심지어는 반바지 이외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여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교회 모임을 위해 학교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그곳에서 어떤 스포츠 행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와드 회원들의 옷차림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했지만, 우리도 세상의 낮은 표준으로 점차 다가가고 있어 더 이상 그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일요일 옷차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옷차림은 문화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은 그들의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특히 그분의

거룩한 날에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만큼 가장 세심하고 단정한 용모를 하고 옷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 강을 건너야만 하는 페루의 외딴 지역에서는 분명 어떤 회원의 하얀 셔츠에 흙탕물 얼룩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옷과 그 이상을 갖고 있고, 예배당에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입는 구겨진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교회에 나타난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얻은 저의 경험에 따르면 별로 가진 것 없는 회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깨끗하고 좋은 옷,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안식일 모임에 도착하는 반면, 너무 많은 옷을 가진 사람들이 평상시의 차림으로, 심지어는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옷차림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옷차림과 머리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진정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믿지만, 바로 그 점이 저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거룩한 장소와 행사에서 평상시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교만 또는 반항 등이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차이점을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쉽게 멀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걱정합니다. 그들이 신성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감각을 얻지 못하는 한,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후일의 경륜의 시대의 성도입니다. 그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십시오.



이러한 원리는 신성하거나 경건의 대상이 될 만한 활동과 행사, 즉 침례, 확인, 성임, 병자 축복, 성찬 집행 등등에 적용됩니다. 교리와 성약은 신권의 의식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교리와 성약 84:20)라고 말합니다. 저는 벵타이를 매고 가능하면 흰색 셔츠를 입고 성찬을 집행하는 제사와 교사와 집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행사에 대한 인식과 경건을 보여 줍니다.

최근에 저는 자신들의 조직에 영예를 돌리는 공개 행사에 동료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정장을 하고 벵타이를 맬 것을 촉구하던 한 사람이 보낸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행사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이 신성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존중 받아 마땅한 것들이 있으며, 우리의 옷차림이 표현 방식 중 하나라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행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격식을 차려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중요한 진리를 말해 줍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행사와 장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도록 행동하고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경건의 축복

여러분이 신성한 것에 대해 더욱 깊어지는 경건을 느끼게 될 때, 성령은 여러분과 자주 함께하고 결국 끊임없이 함께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력과 진리에 있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경전은 그것을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는]” (교리와 성약 50:24)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은 또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구주께서는 친히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런 방법으로 발전하셨으며, 여러분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93:12~20 참조) 그것이 바로 신성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을 인도해 줄 곳입니다.

한편, 거룩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느낌이 없으면 그들은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점점 더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성약이 줄 수 있는 안정된 토대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고 결국 잊혀질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오직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절제되지 않는 욕망의 만족에 대해서만 염려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신성한 것들을 경멸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신을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행 동과 옷차림을 통해서 신성한 행사와 장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보여 줍니다.

신성한 것을 신중하게 다루십시오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날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욱 큰 지식과 이해력이 주어질 때, 이러한 것들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우며 신중히 그리고 영이 권하는 대로 말해야”(교리와 성약 63:64)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거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으며 (제3니파이 14:6; 교리와 성약 41:6 참조), 이것은 신성한 것들에 대해 그 가치를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 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현명하게 다루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 내용을 아무나와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경륜의 시대에 계시되고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과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수많은 신성한 것들을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주의함 속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고 순종에 있어서 좀 더 충실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것, 신성한 장소, 신성한 경우들에 대해 경건과 존경을 보이도록 생각하고 느끼고 옷 입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것에 대한 감각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여러분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 또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004년 11월 7일에 교회 교육 기구 위성 방송에서 한 말씀에서.

정숙함은 중요하다

정숙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교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눈다. 옷차림이 정숙한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가족, 와드나 스테이크 (또는 지부나 지방부)에서 어떻게 정숙함을 장려했는가? 정숙함의 중요성에 관해 어떤 통찰을 얻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몇 년 전의 한 사건이 정숙함에 관한 내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상호 향상 모임에 갈 준비를 하면서 나는 짧은 반바지를 입었다. 그 바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주 화요일에 계획되어 있던 활동에는 선교 사업에 관해 선교사들이 실제적인 조언을 해 주는 순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어 있던 자리 중 하나가 내 옆에 있었다. 장로들은 잠시 동안 최대한 조심스럽게 누가 내 옆에 앉아야 할지 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 옷차림 때문에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나는 창피했지만, 정숙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숙한 젊은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정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편안하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지,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일으킬 변화에 대해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를 고대했다.

켈시 앤더슨, 미국 오하이오 주



정숙한 패션쇼

2004년 10월, 우리 스테이크의 청남 및 청녀 조직은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기반한 “정숙한 옷차림”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평상복, 운동복, 격식 있는 옷차림 등 3부로 이루어진 패션쇼였다. 우리는 각각의 청남 청녀에게 세 가지 옷차림을 고르라고 했고, 어떤 옷들이 적당한지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청소년 지도자들과 부모님들이 이 활동에 초대했다. 우리는 육신이 성전이라는 경전 구절과 우리의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권고를 강조했다. (고린도전서 6:19~20 참조) 이 활동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적절한 용모와 옷차림을 갖추는 것에 대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테레사 데 헤수스 콘트라라스 데 라미레스, 멕시코

정숙함에 관한 제언

정숙함은 분명 오늘날의 세상에서, 특히 십대 소녀들에게 어려움을 제시한다. 나도 십대 소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항상 정숙하면서도 유행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 다음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언이다.

- 짧은 셔츠를 입어도 배가 보이지 않도록,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입을 수 있는 긴 탱크 톱을 여러 색상으로 몇 장 산다.
- 천 조각을 짧은 셔츠 아랫단에 바느질해 덧붙인다.
- 셔츠의 주 소재가 면일 경우, 세탁 후 너무 꼭 끼거나 짧아지지 않도록 평상시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산다.
- 여름철에 긴 소년용 반바지를 판매할 때 사 둔다.
- 원피스의 윗부분이 정숙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을 잘라내고



정숙하면서도 유행에 맞는 옷

좀 더 어렸을 때 나는 학교의 또래 친구들처럼 옷을 입고 싶었다. 내가 정숙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소망을 나는 마지못해 따랐다. 지금 나는 어머니가 정해 주신 분명한 기준과 그분의 모범에 감사드린다. 이제 나는 정숙함의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의 간증을 갖고 있다. 정숙하면서도 유행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이다.

로베르타 에켄베르거르,
스위스



정숙함에 대한 간증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정숙한 옷차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순결의 빛으로 빛나는 눈을 가진, 정숙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커다란 존경심을 갖고 바라본다. 정숙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 올라 크리프코, 우크라이나

나는 우리가 품위 있고 깨끗한 모습을 하고 적절한 옷차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겸손과 존경을 보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살린 체리, 필리핀



예쁜 스커트가 되도록 고치는 것은 어떻게 고려해 본다. 그런 다음 스커트에 어울리는 멋진 상의를 찾는다.

- 시간에 쫓겨서 정숙하지 않은 옷을 살 마음이 들지 않도록 무도회 및 기타 특별 행사가 있기 전 일찌감치 쇼핑을 한다.

많은 소녀들이 정숙하게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이미 엘스모어, 미국 네바다 주

매일 상기시켜 주는 것

내 옷장에는 구주의 그림과 영국 런던 성전의 사진이 걸려 있다. 옷을 꺼내려고 옷장을 열 때면 나는 항상 언젠가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고 정숙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캐롤린 베일리, 영국

꼭 끼는 옷도 정숙하지 못한 것임

많은 사람들은 정숙하지 않은 옷차림이 단지





유혹으로부터의 보호

“단정한 복장과 예절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정한 옷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정하면서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래 위에 그어 놓은 선처럼 결코 넘어가지 않을 분명한 표준을 세우십시오.”

고든 비 톰슨 회장, “의로운 길에 머무십시오”,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14쪽.

몸을 충분히 덮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끼는 옷 또한 완전히 몸을 덮더라도 정속하지 않다. 이것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꼭 끼는 옷이 신체에 이목을 끌게 하고, 이것은 교육, 사업, 지도, 또는 예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적절히 맞는 옷을 입으면 보는 사람의 주의를 상대방의 얼굴로 향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주디스 래스벤드, 미국 유타 주

육신은 성전임

내가 사는 브라질 바이아 지방은 기후가 몹시 더워서 사람들이 정속한 옷차림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나 영이 나와 함께 하도록 옷을 입을 때 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낀다. 나는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테판 켈르꾸에이라 레비타, 브라질

기도의 문제

두 딸과 함께 무도회 드레스를 사러 다니다 실망한 우리는 피곤에 지쳐 집으로 돌아왔다. 정속한 옷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딸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해 보라고 격려했다. 옷 문제 따위로 기도를 드려도 괜찮은 건지 확신하지 못한 아이들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니파이전서 3장 7절에 있는 니파이의 확신이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에도 적용된다고 약속했다.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 딸아이들은 그 문제에 관해 기도하겠다고 했고, 일주일 내에 우리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충분히 적절하게 고칠 수 있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발견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속함을 기도해야 할 문제로 삼고 있다. 설령

그것이 먼 거리를 운전하거나 샘플 옷걸이를 뒤지거나 또는 상당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나는 영으로부터 오는 작은 속삭임을 따르는 것을 배웠다. 내가 무리해서 그렇게 할 만큼 정속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딸아이들이 알기를 바란다.

제리 제이콥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패널 토론

청녀들 사이에서 정속함을 장려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청남들과의 패널 토론이다. 이 방법은 우리 와드 젊은이들이 이 복음 원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한자리에 보이도록 이끌었다.

참여하도록 초대했던 제사들 가운데 몇몇은 청중으로 참석할 청녀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청남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 우리는 미리 모여 그들이 정속함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적절하게 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패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영을 느꼈다. 청녀들은 토론에 참여했고 청남들이 하는 말을 경청했다. 패널 멤버 중 한 명은 청녀들에게 “우선 교회 모임에서 정속하지 않은 차림을 보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청녀들은 자신의 친구들이 주는 조언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존 월킨슨, 미국 유타 주

육신은 은사임

고등학교 마지막 한 해 동안 나는 대학에 가기 전에 간증을 강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구주의 생애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 관해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게 눈물을 흘리도록 할 만큼 크나큰 감명을 주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내 존재 깊은 곳에 깊이 침투하면서 나는 정속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단지





내면의 아름다움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나는 정숙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침례를 받고 몇 달이 되지 않아 나는 옷이 나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기보다는,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로세안헬라 바레토, 브라질

소년들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은사 가운데 하나인 육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자신과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분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싶기 때문에 정숙해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때까지 정숙함에 대한 강한 간증이 없었다.

브렌다 페티, 미국 아이다호 주

인터넷 쇼핑을 해 볼

어느 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나오면서 나는 몇몇 신부 들러리들이 정숙하지 않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리에 서 있는 신부 들러리들은 정숙하면서도 매우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디서 그런 아름다운 드레스를 찾았는지 물어보았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인터넷에서요.”라고 답했다. 인터넷은 정숙한 옷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앤 엘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옷차림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옷 입는 방식은 여러분이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복장과 몸차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차림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을 때, 성신이 함께 동반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는 짧은 반바지와 치마, 몸에 꼭 끼는 옷, 배를 노출시키는 옷,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이 있습니다. 청녀는 어깨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하며 가슴이나 등이 깊이 파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심히 노출된



옷을 피해야 합니다. 청남 또한 단정한 외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형태의 의복이나 외모 또는 머리 모양을 피해야 합니다. 의복이나 몸차림, 또는 몸가짐에서 언제나 깔끔하고 청결해야 하며, 또한 단정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의 없는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의 면전에 선다면 내 모습에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2001), 15~16쪽.

알고 계십니까?

6월에 일어난 일



1801년 6월 1일:
교회 제 2대 회장인
브리검 영이 버몬트
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7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1836년 6월 19일: 교회 제 5대
회장인 로렌조 스노우가 22세 때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부근에서 침례를 받았다.

1844년 6월 27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 스미스가



일리노이 주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당했다.
교회 제3대 회장인 존 테일러는 그들의
순교가 “몰몬경과 이 책 곧 교회의 교리와
성약이 ... 십구 세기의 가장 고귀한 피를
대가로 지불하였음을” (교리와 성약
135:6) 세상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1850년 6월 18일: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했던 존 테일러 회장
(1808~1887년)과
다른 선교사들이
프랑스 선교부를
세우기 위해
프랑스에 도착했다.

지도자를 위한 조언

야곱서 5장을 읽어 보셨습니까? 정말로
읽어 보셨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포도원의 주인과 그의 종, 그리고
감람나무에 관한 비유가 있는, 몰몬경에서
가장 긴 이 장에 지도력에 관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예를 보면서
야곱서 5장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보십시오.
그의 인내, 권고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그의 태도, 주위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에
주목할 때, 여러분은 포도원의
주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배우는 길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겸손하고
상한 심령”,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03쪽.

퍼레이드에 참가한 스코틀랜드 청소년들

스코틀랜드 던디 스테이크 던디 제2와드 및 던디 빙엄 와드에
속한 24명의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열린 던디 시장 청소년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던디의 뛰어난 젊은이들과
그들의 재능,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그들의
봉사를 기리기 위해 거행된
이 행사에는 1,000 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참여했다.



도시 곳곳을 행진한 뒤에 시장이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이후 일부 청소년 그룹이 축구, 하키, 응원, 태권도, 막대 돌리기
등과 같은 활동을 시범 보였다. 던디의 청남 청년들은 이

역사적인 행사에 교회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무척 기뻐했으며,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와서

배우고 싶기 세 요



폴 밴던버그 교회 잡지

알 티플라노-볼리비아와 페루의 경계에 위치한 안데스 산맥의 이 고원지대 높은 곳에 티티카카 호수가 있다. 해발 3,800 미터에 있는 이 호수는 대형 배로 여행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이다. 또한 가장 오래된 미대륙 문명 중 하나인 잉카 문명이 태동한 전설적인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태양이 잉카 문명의 설립자들을 지상의 티티카카 섬으로 내려 보냈다고 한다.

호수물의 수온은 섭씨 11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 온도는 수영을 하기에는 상쾌할 정도로 차갑고, 침례를 위해서는 분명히 차가운 온도이다. 그러나 16살 된 로베르토 카를로스 콘도리 파추리가 작년에 침례를 받은 곳은 바로 티티카카 호수였다. 볼리비아의 엘알토에 있는 집회소의 침례탕을 채우기에 충분한

물이 없을 때가 가끔 있어서, 그런 경우에 그들은 호수로 간다. 로베르토 카를로스는 침례 받았던 때를 잘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물 때문이 아니다. 바로 그가 교회 회원이 될 때 느꼈던 따뜻한 영 때문이다.

로베르토 카를로스는 친구인 15살 된 호세 루이스 마마니 카리의 소개로 교회에 왔다. 로베르트 카를로스는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리에 참석했어요. 그때 교회 건물에 처음으로 들어와 봤는데, 약간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환영 받고 있음을 금세 알게 되었다. 실제로 보통의 경우 매주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30여명 정도의 청소년 중에서 15명은 교회 회원이 아니다. 볼리비아 티티카카 지방부 바탈라스 지부의 청소년들은 목요일 저녁마다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주중에는 집에서 공부한다.

16살의 안헬라 다니엘라 산히네스 플로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친구들에게 와서 배우도록

볼리비아의 로베르토 카를로스 콘도리 파추리는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와서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좋았어요.” 로베르토 카를로스는 작년에 티티카카 호수에서 침례 받았다.

권유하고, 그런 다음 우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요.” 그들은 왜 올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게 놀려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하며,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권하기 때문에 옵니다.”

로베르토 카를로스는 이 모든 이유로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싶었다. “제가 배우는 것들이 좋았고, 여긴 친구가 많아요.”라고 그는 말한다. “수업이 끝나면 축구나 배구를 해요.” 그는 세미나리 그리고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대의 선지자들과, 오늘날 살아있는 선지자, 또한 그리스도가 미대륙을 방문한 것에 대해 배웠다. 로베르토 카를로스는 복음의 진리를 배움으로써 교회에 들어왔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5년)은 회원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행하십시오!”라는 모토를 갖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회복에 대해 간증할 때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호세 루이스는 그것이 참됨을 알고 있다.

로베르토 카를로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는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호세 루이스는 말한다. “저는 제 간증을 나누고 싶었고, 그렇게 했어요.”

코차밤바에서의 용기

엘알토에서 남동쪽으로 260 킬로미터 떨어진 코차밤바에서 청소년들은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교회 활동 밖에서 이 십대 청소년들은 종종 그들의 표준을 낮추라는 압력을 또래들에게서 자주 느낀다. “제가 나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힘들어요.”라고 볼리비아 코차밤바 코비하 스테이크 라 침바 와드에 다니는 19살의 크리스티안 페레스는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친구라고 생각해요.” 이 젊은 남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학교 또는 심지어 가정에서 유일한 회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 의지하여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크리스티안은 계속해 말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돕는 길은 함께 세미나리에 가고 함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같고 서로를 보살펴요.”라고 볼리비아 코차밤바 하이우아이코 스테이크 알라라이 와드에 속한 19세의 미리암 에우헤니아 코파 페르난데스가 동의한다. “그렇게 하면 온종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주는 영적인 도움은 그들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

“세미나리는 제가 약점과 유혹을 극복하고, 또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볼리비아 코차밤바 코비하 스테이크 아메리카 와드에 다니는 18세의 네피아 플로레스는 말한다. 청남 청년들이 더욱 강한 간증을 쌓아감에 따라 그들은 친구들에게 더욱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다.

“모든 수업과 권고 한마디 한마디가 특정한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세미나리에서 보낸 4년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라고 라 침바 와드에 다니며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19세의 루이스 카를로스 곤잘레스 하이메스는 말한다.

코차밤바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힘을 얻기 위해 자주 성전을 방문한다. “여기 코차밤바에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매주 성전에 갈 수 있어요.”라고 볼리비아 코차밤바 하이우아이코 스테이크 페트롤레로 와드에 다니는 18세의 하롤드 레이날도 살라자르는 말한다. “성전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참석할 때와 같이, 친구들의 행동에서 간증의 힘을 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영적인 힘을 구하기 위해 서로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친구들을 참 존경해요.”라고 미리암은 친구들에 관해 말한다. “친구들은 영적으로 강하고, 모든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어요. 그들은 교회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어요. 용감하고요. 유쾌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이 도시의 동쪽에서는 볼리비아 코차밤바 로스알라모스 스테이크 콜카피르우아 와드에 다니는 약 20명의 청소년들이 6시 세미나리가 시작하기 전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만나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다.

“저는 세미나리에 오는 것이 제가 영을 지니는 데, 또 하루 종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요.”라고 18세의 제니 리나레스는 말한다.

아침 식사는 주로 설탕을 곁들인 빵, 마테라고 하는 약초 음료, 또는 찰 옥수수를 가루로 빵아 만든

음료인 아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음식보다는 영적인 영양분을 위해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코차밤바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축복이다. 그 중 많은 이들이 매주 성전에 간다. 코차밤바에서 온 이 세미나리 학생들은 그들이 친구 이상의 관계이며, 마치 가족과 같다고 말한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네피아 플로레스, 알레한드라 감보아, 루이스 카를로스 곤잘레스 하이메스, 미리암 에우헤니아 코파 페르난데스, 크리스티안 페레스, 예세니아 살가도, 하롤드 레이날도 살라צר.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또 세미나리 수업에서 배운 원리들을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카노토 스테이크 에스타시온 와드에 다니는 18세의 아단 쿠인텔라 아파리시오는 말한다. “교회에 세미나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사방에서 자신들의 표준을 낮추려는 유혹과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볼리비아의 청소년들은 복음 진리에서 보호와 힘을 찾았다.

“세미나리는 제 인생에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 왔어요.”라고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엘바히오 스테이크 카르멘 지부에 다니는 마리아 디 후스티니아노는 말한다. “그것은 매일 학교에서 저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방패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학교 교사들은 진화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가르치는데, 세미나리에서는 우리를 잘

준비시켜 줘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알티플라노의 고원지대에서 무더운 산타크루스에 이르기까지 볼리비아의 이 모든 청소년들이

동의하는 점은 바로 그들이 함께 모일 때 복음 안에서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세상의 유혹에 더 잘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란스 콘도리는 이렇게 말한다. “막대기가 하나만 있으면 쉽게 부러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막대기가 여러 개 묶여 있으면 부러뜨릴 수가 없지요. 뭉쳐서 하나가 될 때,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를 부러뜨리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서로 도우니까요.” ■

“세미나리에 오는 게 즐거워요.”라고 14살 된 톨리 브라보는 말한다. “청소년들의 하루를 아침부터 행복하게 해 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와요.”

“사실 세미나리에서 보낸 4년은 제가 선교 사업에 대해 많이 생각하도록 해 주었습니다.”라고 18세의 디에고 디아즈는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리를 졸업할 거예요.”

볼리비아 코차밤바 우니베르시다드 스테이크 아로카구아 와드에 다니는 20세의 프란스

콘도리는 이에 동의한다. 그는 4년 전에 침례를 받았으며 곧 선교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선교 사업을 할 목표를 세웠고, 세미나리 4년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가 항상 읽고 공부하는 경전은 제가 선교사가 되었을 때 받을 수도 있는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산타크루스의 강한 청소년들

코차밤바에서 동쪽으로 약 29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산타크루스가 있다. 그러한 거리에서 기후는 변한다. 이곳은 훨씬 덥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산타크루스의 청소년들의 생활에 큰

상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세미나리에서의
4년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단 쿠인텔라
아파리시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도움이 될
참으로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어요.”
-프란스 콘도리

“세미나리는 제
인생에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 왔어요.”
-마리아 디
후스티니아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김벌리 웹
교회 잡지

내 노트에 휘갈겨 쓴 주소지를 발견했을 때 나는 그곳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곳은 아파트로 개조된 크고 오래된 회색 건물이었지만 흑백 영화에 나오는 유령의 집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래도 나는 레이첼을 만나고 싶어서 용기를 내 뺨긱거리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곳에 오기 전, 종교교육원 건물 게시판에 압정으로 붙어 있던 숙소 임대 광고를 보고 있을 때, 그 광고는 종이와 압정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이불처럼 흐릿해 보였다. 그러나 광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나는 레이첼입니다. 달리기와 재즈 음악, 초콜릿을 좋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웃었다. 아파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주지는 않았지만, 룸메이트는 재미있어 보였다.

얼마 동안 레이첼과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아파트 느낌이 좋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의 첫 인상을 떨쳐내고 몇 주 후 그 아파트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이 주 동안의 가족 휴가를 떠났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오싷한 느낌이 몰려들었지만, 그 느낌을 털어내고 짐을 푸는 데 몰두했다. “이곳이 낯설어서 예민해진 거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생각했다.

저의 자정이 되었을 때 목이 아프고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뭔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다. 나는 주위를

뒤적이다가 레이첼의 향기 나는 초를 몇 개 발견했다. 나는 그것들을 바깥에 두기로 했다.

나는 통로 주변의 조명이 고장 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문을 약간 열어 빛한 줄기가 새어 나가게 했다. 나는 맨발로 어둠 속을 급히 가로질러 현관으로 갔다.

갑자기 나는 자리에 얼어붙었다. 밤 공기는 고요했다. 어떤 소리도

나 는 어둠 속을 급히 가로질러 현관으로 갔다. 갑자기 나는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라.” 영의 지시는 명백하며 긴박했다.

여전히 초를 꼭 쥐고, 나는 어둠 속에 급히 지나 방으로 가 문을 꽂 닫았다. 문을 잠그자마자 손잡이가 돌아갔다.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나는 손잡이가 소리 없이 천천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가 통로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따라 들어오려 했었고, 간발의 차이로 늦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부수기 쉬운, 나무로 된 문밖에 없었다. 본능적으로 나는 주먹으로 최대한 세계 문을 쳤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서서 얼마나 오랫동안 조용히 기도했는지 모른다. 마침내 위협은 사라졌으며 그날 밤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평화로운 느낌이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전화를 했다. 엄마와 아빠는 휴가 중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더 일찍 전화를 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도 전에 엄마가 말했다. “걱정했어! 네 방으로 가는 통로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가지질 않는 거야. 조명은 괜찮니? 누군가가 숨기에 안성맞춤이더구나.”

나는 엄마가 3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위협을 감지할 만큼 공격이 가까웠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쳤다.

그런 다음 엄마는 그런 느낌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전날 내게 전화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너랑 전화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기도했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옳았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며 통로에 숨어 있었다. 또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할 일을 알려 주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비극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분을 따른다면 내 인생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날 밤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는 것에 나는 감사를 드린다. ■

딱 오 분만 더

일레인 브라운 프레슬러

우 리 가족은 자연을 좋아한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여름에는 하이킹, 캠핑, 자전거 타기, 또는 야외 구경을, 겨울에는 썰매, 스키, 또는 눈 속에서 산책 등을 하며 야외에서 보낸다. 이런 시간은 남편과 내가 세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기회를 주는 가족을 위한 좋은 시간이다.

어느 여름날, 우리는 인근의 숲에 있는 호수 근처를 걸었다. 날씨는 완벽했다. 호수에서는 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우리는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서로에게 생화와 나무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움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본 곳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인지 결정하려고 해 보았다. 한 아이는 인근의 엘로스톤 국립 공원이라고 말했다. 다른

일 곱살된 제이콥이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예수님께 관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한 캠핑 장소라고 말했다. 우리는 바다로 갔던 여행과 반짝이는 눈으로 덮인 나무가 늘어선 크로스컨트리 스키 코스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의 토론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일곱



작은 결정, 영원한 축복

빅토르 피노 푸엔테스

나는 부모님께서 칠레 안토파가스타에서 선교사들을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던 어린 시절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나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 위해 별로 한 일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결국 저활동이 되었고 나를 돕는 복음의 신성한 권능 없이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충실하신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의로움의 표상으로 남으셨다.

나는 교회 회원과 결혼했지만, 우리 둘 다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표준에 따라 생활할 긴박함이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정 생활은 나쁜 쪽으로 급격히 변해 갔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아내는 딸아이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들은 매주 집으로 돌아와서 배운 내용에 대해 들려 주었다. 얼마 후 나는 가정 복음 교사들의 방문을 받기 시작했고, 그 두 명의 충실한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인지 나 자신은 보지 못했던 신성한 가능성을 내게서 보았다.

내 마음 속에 천천히 변화가 일기 시작했지만, 처음에 나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내는

내가 함께 교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내 옷을 다림질했다. 나는 그 옷을 입기엔 고집이 너무 셧지만,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성찬식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저활동 회원이 으레 그렇듯, 나는 어느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못하게 제일 늦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몇 달 후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주어야 할 만큼의 신권 축복을 내 가족에게 주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교회에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복음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내 인생이 밝아짐을 알았고, 이 간단한 결정을 오래 전에 내렸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은 내 가족과 나를 축복하기를 얼마나 바라셨는지! 아내와 나, 그리고 자녀들은 곧 칠레 산티아고 성전에서 서로에게 인봉되었다.

내게 복음의 원리를 부지런히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사랑과 모범으로 격려해 준 아내에게,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그리고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살 된 막내 아이 제이콥이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라고? 나는 무슨 뜻인지 생각하다가 제이콥이 말한 곳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스퀘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상한 성전, 나무, 분수, 꽃밭이 있는 템플스퀘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제이콥에게 템플스퀘어는 자연이 지닌 외적인 아름다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다.

복잡한 선천성 심장 결함을 갖고 태어난 제이콥은 세 차례의 심장 수술과 수많은 의료 검사를 경험한 역전의 용사로, 앞으로도 많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주치의가 아이다호에 자주 오기는 하지만, 제이콥의 수술과 일련의 검사를 위해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아동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런 여행은 종종 제이콥의 건강에 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며, 우리는 템플스퀘어를 방문하는 것이 우리의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분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제이콥을 위한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복잡한 수술이 있기 전날 밤,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템플스퀘어 방문자 센터로 가서, 구주의 영광스러운 석상인 그리스도상을 바라보며 함께 앉아 있었다. 부모의 무릎에서 평화롭고 따뜻하게, 그리고 떠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제이콥은 평소와 달리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딱 오분 만 더” 있자고 졸랐고, 그러다 보니 한 시간 넘게 그곳에 있었다. 마침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평안을 느꼈고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헤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제이콥이 템플스퀘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본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느낀 것 때문이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위로라는 선물은 제이콥이 그의 눈으로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믿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심란하거나 두려울 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은 특정한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나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제이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

춤추는 커플의 재결합

쿠르트 스타트너

나는 25년 동안 오스트리아 비너노이슈타트 시내에서 일했다. 5월의 어느 포근한 날 나는 점심 시간 동안 보행 구역을 산책하다가 한 서점에 들렀다. 문 근처에 할인 도서로 가득 찬 커다란 상자 두 개가 있었다. 나는 어떤 책이기에 그렇게 낮은 가격에 팔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두 개 중 한 상자에서 맨 위에 있는 책을 집어 들었다. 그 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은 딱히 없었지만, 책을 열어보니 춤추고 있는 한 커플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거기서 그레틀 스타트너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라는 것을 즉시 기억해 냈다. 나는 수년간 그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세관원이었지만 또한 열성적인 무용수여서 무용 학교를 손수 운영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지 몇 년 후 아버지는 무용 학교에서 그레틀을 만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35세였을 때 맹장 파열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임종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친어머니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레틀이 나를 맡아 키워 줄 것을 분명 바랐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망하기 불과 세 시간 전에 그레틀과 결혼했다. 하지만 그레틀은 몹시 젊었고 여전히 부모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녀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길은 없었고 따라서 나는 아동 보호 시설에서 자랐다.

그 책을 들고 서서 스타트너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춤추는 커플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녀가 아버지의 합법적인 아내라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인봉될 권리를 갖고 있었다.

조사를 통해 나는 그레틀이 재혼하지

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 그레틀을 자신의 무용 학교에서 만났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인봉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않았고, 비엔나에 살았으며, 그곳에서 발 관리 센터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는 그녀의 가족이 살았던 곳뿐만 아니라 그녀의 처녀 때 이름이 바이센베르르였다는 것도 기억해 냈다.

아내와 나는 그들을 수소문했지만 그 가족의 어느 누구도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실망했다. 공동묘지를

찾아가 보았지만 그 가족이 묻힌 곳의 비석에는 성만 열거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진전도 없었다. 그러다가 누군가는 묘지와 묘지 관리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묘지 주인에 관한 정보를 관리자들에게 부탁했다. 이름을 받아 들고 비엔나로 가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그레틀의 조카딸이었다. 그녀는 그레틀의 성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날짜들뿐만 아니라 사망한 모든 가족, 즉 부모, 조부모, 이모, 삼촌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아내와 그레틀의 조카딸이 어릴 때 같은 시기에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며, 둘 다 같은 날 졸업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세상은 얼마나 좁은가.

아내와 나는 모든 가족 이름들을 성전에 제출했고 그런 다음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성전 사업을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기회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의붓어머니의 책을 발견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 그레틀의 조카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레틀이 많은 책을 갖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가 조카딸에게 건네져서 일부는 소장하고 일부는 팔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 한 권만이 비너노이슈타트로 오게 되어 내 손에 들어왔던 것이다. ■





주님의 타이밍

교회는 내 삶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여러 경우에 영을 느꼈습니다. 경전 공부와 우리의 선지자 및 지도자들이 쓴 기사들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던 한 기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의 "타이밍" (2003년 10월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모든 것을 위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을 강화시켜 준 이 기사에 대해 옥스 사도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빅토르 산타나 아리아스, 도미니카 공화국

주옥같은 시각 예술

제 남편과 저는 리아호나에서 늘 보는, 매우 다양한 아름다운 사진들에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연차 대회 특집호에 실리는 훌륭한 흑백 사진들에 대해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주옥같은 이 시각 예술을 가능케 한 노련한 사진 작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이 훌륭한 잡지의 내용을 매달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멘 티 드 루시타, 베네수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제 영혼에 차고 넘칩니다

전임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리아호나와 같이 고무적인 자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 2월호와 특히 크리스틴슨 장로님과 자매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일곱 가지 교훈"이라는 기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를 고무시켜

주었으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저의 소망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잘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제 영혼에 차고 넘칩니다.

이라닐슨 리아테 마카도, 브라질

의로움을 충전함

이 훌륭한 잡지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에는 교회 서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아호나는 매달 우리에게 오랜 기간을 위한 의로움을 새롭게 충전해 줍니다. 또한 질의 응답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런 질문들입니다.

세르게이 안타마노프, 러시아



신약 미술품 제출을 위한 요청

신약전서 주일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교재들이 2007년에 출판됩니다. 전문 미술가들은 신약에 나오는 장면들에 대한 미술품을 심사를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품 견본을 이메일을 통해 cur-artist-photographer@ldschurch.org로 보내거나 칼라 사본을 우편으로 New Testament Art, Liahona Magazine, 50 E. North Temple St., Roo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물은 2006년 10월 31일 전에 우송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 메릴리 핀들, 복스 크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가족을 지원함

2006년 2월 11일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의 방송 내용은 회원들이 가정에서, 또는 공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06년 6월호 리아호나와 엔사인 그리고 www.lds.org에 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결혼의 교리

제 일회장단은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을 강화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결혼의 신성함이 공격 받고 가정의 중요성이 손상되고 있는 오늘날보다 더 필요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와 그 프로그램이 결혼과 가족을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일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기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기구나 조직도 가정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 필수적인 기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¹ 따라서 오늘 저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이신,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회의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이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받은 말씀 지명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영원한 결혼의 본질적인 역할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상적인 결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원한 잠재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누구이며 왜 필멸의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봄으로써 결혼 여부나 현재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인도와 위안, 그리고 힘이 되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이상적인 결혼과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일상 생활 간의 차이는 때에 따라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은 점차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행동을 하게 되며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결혼과 관련된 원리들을 이야기할 때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질문 2: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로서,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결혼과 가정을 강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들을 숙고하고 우리의 결혼 관계와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의 영이 우리 생각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발전해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리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

결혼이 왜 필수적인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²이라고 선언합니다. 선언문에 있는 이 중요한 문장에서 우리는 결혼에 관한 교리적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아버지의 계획에서 결혼과 가족의 일차적인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결혼은 계명이며 무덤 저편까지 계속될 수 있는 사랑스러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중요한 두 개의 교리적 이유로 우리는 영원한 결혼이 왜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 1: 남성과 여성에게 있는 영의 본질은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승영을 향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결혼의 영원한 본질과 중요성은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에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³ 위대한 행복의 계획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들과 딸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생활을 경험하며, 완전을 향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재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⁴이며 큰 관점에서 본다면 성별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지상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 남성과 여성의 영은 서로 다르고, 구분이 분명하며, 또한 상호 보완적이 됩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였고(창세기 2:18; 모세서 3:18), 그래서 이브가 아담의 동반자요, 배필이 되었습니다. 행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영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능력의 독특한 결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는 혼자서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완전과 충만한 영광을 향해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성품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 결혼 관계에 각각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하나됨과 단합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만 균등하게 기여함으로써 이루어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강화하며 서로를 축복하면서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 안에서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지 않습니다.(고린도전서 11:11)

이유 2: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이 세상에 자녀를 데려와야 하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 즉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⁵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간의

결혼은 전세의 영들이 현세에 태어날 수 있도록 승인된 통로입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는 완전하게 충실하여 이 영원한 통로의 신성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충실한 남편과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상적인 결혼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팔리 피 프렛 장로

아내로 구성된 가정은 자녀들이 사랑과 의로움으로 성장하는 최적의 환경이며, 자녀들의 영적 및 육체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특성들이 결혼 관계의 완전함에 기여하듯이 그 똑같은 특성들이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가르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⁶

지침 원리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결혼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리적인 이유들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기혼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에 대한 지침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원리 1: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은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관련하여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강력한 국가의 기초로서 사회 및 문화의 중요한 제도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을 단순하고 기본적인 행복의 계획의 교리와 관련시키지 않고 강조만 한다면 혼란과 사악함이 증가하는 이 세상에서 충분한 인도, 보호, 또는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엘마의 가르침,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신 후에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엘마서 12:32)

팔리 피 프렛 장로는 이상적인 결혼의 교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며, 그것을 우리 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오는 축복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로서 맺는 아름다운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현세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게 되며,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도록 해주는 공감대와 애정이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도 바로 조셉이었습니다. ...

“전에 저는 사랑을 했지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수하게 한층 고양되고, 이 천박한 영역의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제 영혼을 들어 올려 마치 대양과도 같이 넓게 펼친, 승화된 느낌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간단히 말해 저는 이제 영과 이해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의 사랑하는 형제, 조셉 스미스는 단지 장막의 한쪽 귀퉁이를 들어올려 나에게 잠깐 동안 영원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⁷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관련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의 교리를 통해 남자와 여자는 영원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준비하게 되며, 각자 결혼을 늦추거나 피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간증하는 것은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좀더 충만하게 이해할 때 더욱 커질 것입니다.

원리 2: 사탄은 모든 남자와 여자가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기를 원한다.

루시퍼는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왜곡시킵니다. 사탄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사악한 방법으로 집중 공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탄은 끈질기게 성별에 관한 이해를 혼란케 하고, 생식 능력을 일찍 사용하거나 불의하게 쓰도록 종용하며, 올바른 결혼을 방해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가족의 행복의 계획에서 중심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결혼에 대한 사탄의 공격의 강도와 빈도, 그리고 교활함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과 가정의 복리를 위한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저는 최근 물문경을 읽으면서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니파이 백성들이 적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을 맞이할 대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앨마서 2:12) 이것을 읽고 연구하면서, *적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준비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후일의 전쟁에서 우리 적들의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행복해지도록 도우며, 안전하게 그분에게 데려오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혼란시키고 불행하게 만들며 그들이 영원히 발전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계획을 공격합니다. 거짓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된 의도는 우리 모두가 그 자신처럼 비참해지게 하는 것이며(니파이후서 2:27),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의 계획의 요소들을 변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육신이 없고, 결혼할 수 없으며, 가족을 갖지 못합니다. 그는 신성하게 제정된 성별, 결혼, 가족의 목적을 혼란시키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사탄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을 세상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악마는 성별과 결혼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또한 그러한 혼란을 이용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하려 시도했습니다. 도덕적인 면을 넘어서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탄이 주장하는 거짓된 대체물을 통해서 결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완전함과 올바른 결혼 생활의 행복, 후손을 갖는 기쁨과 영원한 발전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의 의도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각자 결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또한 아버지의 계획에서 성별의 영원한 중요성과 결혼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가정과 교회 부름에서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영감을 구하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리 3: 사랑과 행복의 궁극적인 축복은 영원한 결혼의 성약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약의 결혼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삼각형, 즉 밑변의 한쪽에 여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 남자가 있는 삼각형의 정점에 어떻게 구주가 위치하고 있는가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개별적으로 꾸준히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 안에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할 때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로나이사 10:32) 구속주 덕분에, 그리고 구속주를 통해 남자와 여자는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제3니파이 27:14 참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봉사할 때, 인생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성장하며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본질의 결합을 통해 축복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성취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가진 목적 그 자체인 궁극적인 행복은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남편과 아내

존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젊은 독신 남녀들이 우리가 보이는 개인적인 모범을 통해 올바른 결혼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남녀 젊은이들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합당함, 충실함, 희생과 성약을 존중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구애와 결혼 관계에서 똑같은 원리를 추구하려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가 영원한 동반자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기보다는 좀더 나누고, 봉사하고, 동등하고 영원한 동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상호 존경과 애정, 신뢰, 그리고 사랑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이와 똑같은 특성을 키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교회의 청소년들은 비록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의 됴됨이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의 많은 젊은 회원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이혼 사례를 보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성약이 깨어지는 것을 본 까닭에 영원한 결혼을 향한 진보를 두려워하고 머뭇거립니다. 영원한 결혼은 단순히, 그리고 단지 어떤 사유로든 아무 때나 종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법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세와 영원에서 구속력을 갖는, 하나님과 맺은 신성한 성약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충실함과 충성심은 단순히 설교할 때 사용하는 매력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성약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개인적인 모범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느 부분을 향상시켜야 할지 깨닫고 있습니까? 성신은 우리 생각에 영감을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더 나은 행동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줍니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로서 우리는 결혼과 가정을 강화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합니까?

남편과 아내는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그들 자신과 가정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영화롭게 완수하려고 노력하면서 무심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에서 그들의 신성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불필요한 모임과 활동을 계획하여 때로 부부간의 필수적인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할 때 저는 성신이 바로 이 시각에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울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자원

계획의 교리를 배우고 이해하며, 올바른 결혼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고, 가정과 교회에서 정확한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비범한 일을 성취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래 전에 베드나 자매와 저는 어리고 활기 넘치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필요사항을 끊임없이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교회와 직장, 지역 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우리는 마침내 어떻게 하면 중요한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맺은 성약을 더 충실하게 존중하지 않으면 영원한 세상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젊은 남성과 여성이 우리의 개인적인 모범을 통해 의로운 결혼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남편과 아내로서 더 훌륭하게 행동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래 전에 배운 그 교훈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복의 계획에 대한 감미롭고 단순한 교리를 통해 값지고 영원한 안목을 갖게 되며,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있습니다. 성신과 계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식과 성약,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신권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경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올바른 결혼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고, 강화하고 그것을 옹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갖고 있으며, 참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참조; 리아호나, 1999년 12월 1월호 참조.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3.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4.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5.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6.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7.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년), 297~298쪽.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책임에 균형을 맞춤

제가 지명 받은 주제는 가족 선언문에 있는 내용으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¹라는 것입니다. 그간 여러분이 훈련 모임에서 받았던 익히 잘 아는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지침서에서 많은 내용을 인용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여러분의 봉사에 관해 솔직히 터놓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특별한 부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모두 함께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830년 4월 6일 교회를 조직하는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현재 교리와 성약 21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그 가운데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장로라 일컬음을 받고,

“성신의 감동을 받아 그 기초를 놓으며 지극히 거룩한 신앙을 위하여 이를 쌓아 올릴지니라. ...

“그런즉 교회를 뜻하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교리와 성약 21:1~2, 4~5)

새로 조직되는 이 교회에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책임을 수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영감과 계시를 따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권고

오늘날 우리의 선지자 고든 비헝클리 회장님은 일찍이 2003년 6월 21일에 있었던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우리의 책임에 균형을 맞추는 열쇠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세상의 구속주를 대표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의미하는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기회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여러분에게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훌륭한 일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원하는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거룩한 결합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신성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다음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21)²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그 방송에서 회장님은 우리의 네 가지 책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첫번째 것이 오늘 방송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가족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필수입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친 뒤,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가족 관계입니다. 경전의 말씀을 약간 바꾸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고도 가족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36 참조)³

이것은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메시지입니다. 복음 교육과 지도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은 가족과 가정입니다. 만일 이런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임무지명을 주고, 또한 우리 가족을 보완하고 후원해 주는 프로그램과 활동, 공과를 계획할 것입니다.

적절한 우선 순위를 정함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느냐가 가족에 대한 의무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 시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상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첫번째 우선 순위입니다.

교회는 개인과 가족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영생을 얻도록 돕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은사이고 가족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은 주님께 신성하며,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닙니다. 결혼 성약은 주님의 계획에서, 또한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목적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시대에 그분께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거룩한 결합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신성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둘째로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들과 가까워 지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자녀들이 받게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되어야 합니다.

필요합니까? 자녀들이 받게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부모에게서 오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칠 충분한 시간을 내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인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침과 각 자녀에 대한 우리의 교육에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선언문을 인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가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⁴

또한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에게 동반자

관계와 행복을 제공하고,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도우며, 여러분이 영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같지는 않지만, 각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쾌활하고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십시오. 가정에서의 많은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 사항에 마음 쓰십시오. 놀려대거나, 싸우거나, 다투기보다는 중재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구성 단위는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⁵

가족을 부양함

세 번째 우선 순위는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족 선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들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⁶

우리는 적절한 수입을 얻기 위해 좋은 기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기술은 쓸모 없게 됩니다. 교회 임무를 행하느라 바쁘더라도 발전을 이룩하고 가족의 복리를 향상시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사고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권고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주로 아버지들에게 있기는 하지만 선언문에서는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⁷에 따라 어머니들 또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용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감독으로서 부친은 그들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물품들을 공급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독과 그의 아들과 조그만 빨간
마차에게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주차장 한편에 쌓여있는 밀가루, 설탕,
소맥, 기타 생필품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친과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친께서 집에 도착하시면 어느
가족에게 가져가기 위해 물품들을 작은
빨간 마차에 실었습니다. 함께 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두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복지 임무를
완수하곤 했습니다.

저는 한 훌륭한 신권 지도자가 와드
회원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부친과 함께 시간을 보낼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우선 순위에 집중함

제1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우리가 여러분께 가르친 것을 행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단위 조직이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 있고 각기 다른
필요 사항이 있음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가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 내지 방문 교육에
더하여 하나 이상의 교회 부름으로
회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 기본적인 우선 순위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감독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또한 아주 바쁜 변호사였습니다.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셔서 대중 강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섯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부친께서 올바른 우선
순위를 갖고 계셔서 저는 항상
고마웠습니다. 그분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모친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어머니를 대하시는 방법에 그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정말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여섯 살 때쯤, 성탄절 선물로
빨간 어린이용 마차를 받았습니다. 이
축소 모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빨간 마차는 부친과 저 사이를 이어주는
실질적인 고리였습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부친은 그분의 생산성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가족을 그분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감독으로 봉사한 기간 중
대부분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우리 와드의 많은
회원들은 절대적인

교회 봉사

네 번째 우선 순위는 우리가 교회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각오입니다. 활동적인 후기 성도 교회
가족은 교회에서 갖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내기 위해
가족 생활에서 선택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부름을 주고 기대치를
가질 때 그 사람의 가족 상황에 특히
예민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다가 부모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름을 갖고 있어서 가정을 비워야 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교회 활동이 그들 가족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가족 책임과 교회
봉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회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참여시킴

교회 부름에 봉사하면서 적절하다면,
가족을 우리의 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이

**교회 부름에 봉사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왕국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책임을 수행할 때 그분의 영감이 여러분을 이끄는 방법에 놀랄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의 궁극적인 초점은 주님의 사업, 즉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에서 그분을 돕는 기회를 용이하게 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가족을 강화시킴으로써 이 일을 행합니다. 도덕적 타락, 정치적 불확실성, 국제적인 동요, 경제적 불안정의 시대에 가족을 강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에 관한 우리의 초점이 강화되고 배가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하늘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과 승영을 얻도록 가족을 돕는 것입니다.

가족 지도서

여러 해 전에 우리는 특별한 가족 지도서를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회원들,

특히 새로운 개종자나 교회에서 많은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책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본 단위 조직이며 현세 및 내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올바른 원리를 배우도록 하며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 가족을 제정하셨다.

가정은 복음 원리들을 가르치고 배우며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가족 지도서(2001년), 1쪽)

다시 한번 이 소책자에 담긴 유용한 가르침을 참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주의 모범

주님이신 구주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길 잃은 사람들을 찾으시며 개별적으로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알고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각 개인의 신성한 본질과 영원한 가치를 인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조차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구주처럼 우리도 교회 지도자로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보살핌과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책임을 행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기쁘게 여김”,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6월 21일, 24쪽.
3.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6월 21일, 22쪽.
4.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5.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01년), 10쪽.
6.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7.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8. *가족 지도서*(2001년), 1쪽.

가족 지도서(물품번호, 31180 320)은 교회 배우 센터 및 서비스 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거룩한 의무를 지닙니다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가족의 책임

제가 이 교회의 부모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는 가운데 매일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영의 속삭임일 것입니다. 그 감미로운 속삭임에 따르십시오.

“저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 발표된 1995년 9월 23일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태버나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핑클리 회장님이 마지막 연사였습니다. 회장님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회중은 조용했지만 “맞아, 우리 가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라고 반응하는 들뜬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 선언문이 참으로 옳은 것이라고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가까이에 앉은 자매들을 보니 그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어서 빨리 그 사본을 구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선언문은 여성의 존엄성을 확인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교회의 여성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저는 핑클리 회장님이 여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지도자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첫번째 책임이 우리의 가족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세로 가지고 가게 될 몇 안되는 축복 중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뉴얼 케이 휘트니는 초기 커틀랜드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감독 여러분처럼 그는 여러가지 선한 일을 하느라 매우 바빴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의 가족에 질서를 세우[라]”(교리와 성약 93:50;

강조제 첨부)²는 명을 받았습니다. 자매와 형제 여러분, 이 조언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부모 또는 조부모이거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족의 어떤 점을 좋아합니까? 제가 저의 가족에 대해 좋아하는 것 한 가지는 기쁘게도 제 아들 네 명이 서로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선언문은 가족에 대해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다음의 한 문단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양육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련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라*는 이러한 지침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의롭게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마련하다

선언문에는 부모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과 음식입니다.



경전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두 간단한 일들이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이 강력한 보호 수단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정 관리 또한

우리가 훌륭한 제공자가 되도록 도와 줍니다. 예산에 따라 생활하도록 부모로서 함께 계획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비합리적인 재정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히클리 회장님께서 부채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하셨을 때,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자신의 결혼한 자녀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두 자녀가 심각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채에서 벗어나는 계획을 세우는 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자녀들이 최대한 많은 교육을 받도록 격려하십시오. 몇몇 국가에서는 젊은이들이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 교육 기금 대출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부모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호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번째 지침은 보호입니다. 무엇에서 보호한다는 것일까요? 육체적 해악과 영적인 해악에서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이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칠 때, 가족으로서 교회에 갈 때, 가정의 밤을 가질 때, 가족 기도를 할 때, 함께

가족 선언문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학대는 정신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과 애정 없이 가치없는 존재로 대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버지가 아내나 자녀들을 치거나 때리는 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아프리카의 한 자매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녀들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며 상냥하게 대해 주십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을 선택하는지 봄으로써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십대 소녀는 아버지가 저녁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 보자 화를 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가족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족 선언문에 나와 있으며 자신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텔레비전과 극장, 그리고 친구들의 집에서 무엇을 보는지 아셔야 합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그것이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것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신약개조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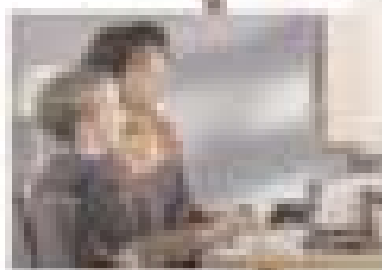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를 때

그러나 복음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에는 인격을 형성하는 것들, 곧 삶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몇 가지만 살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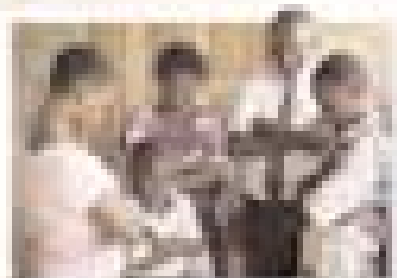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합니다. 제 손자 제이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콥은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앉혀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의 일은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거란다. 엄마의 일은 집에서 너와 형들과 누나를 돌보는 거야. 그리고 제이콥, 네 일은 학교에 가는 거란다.” 제이콥이 그 원리를 이해하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녀들이 집안일을 하도록 하고 적절한 경우 집 밖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의 가치를 가르쳐 평생 동안 필요한 것을 마련하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조기에 시작하십시오. 제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독립심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일하도록 가르쳐

보호받습니다. 물론경을 읽으라는 히클리 회장님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보호받았습니까? 저는 최근에 영국의 한 자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년에 더 이상 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남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동안 활동 회원이었고 감독단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밤을 하고 가족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있는 동안 물론경을 읽으라는 권고 때문에 자녀들하고만 경전을 읽지 말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때마다 남편이 있는 곳에서 자녀들과 경전을 읽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9시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갑니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그는 교회 모임에 나오고 우리와 가정의 밤을 함께하며, 복음 토론을 이끌기도 합니다. 제 자녀들은 주님의 발이 되어 구속하는 사랑에 관한 말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양육하다

세번째이자 마지막 지침은 양육입니다. 양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양육은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으로”⁶라는 성구와 같은 모습이고 느낌이며 소리입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녀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아이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렴.” 우리는 자녀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기초는 선택의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양육이 사랑으로 훈육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젊은 어머니는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를 멈추게

양육은 어떤 느낌입니까? 가르침과 가족 안에서 쌓는 관계의 많은 부분이 일상 생활 속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에 생깁니다. 저녁 식탁은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말을 듣고 격려하며, 함께 웃기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웃음이 짐을 가볍게 해 준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자신들의 자녀를 갖게 되면 부모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을 만드는 이 위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 아들 중 한 명이 그의 가족과 함께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왔어요.”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12월에 몰몬경 읽기를 마쳤을 때 갑자기 몰몬도 어른이 된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 ... 또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

양육의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때때로 십대에게 한 마디 이상의 대답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지금 네게 가장 힘든 일이 뭐니?” 라고 묻는 것이 그런 태도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으로 청소년과 공유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감독과 보좌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여러분 와드의 청소년과 접견할 때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은 가족 기도와 같은 소리입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 가장 오래 남아 있는 기억 중 하나는 저의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의 작은 방 침대 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축복해 달라는 아버지의 간구를 들었던 기억입니다. 아버지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제가 하늘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 공부와 낮 동안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사랑과 기대에 대해 압니다.

가족을 강화함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의 가족을 강화하고 지지합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똑같은 지침, 즉 마련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원리를 여러분 와드의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녀를 맡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존중함으로써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은 조언자가 되고 관심사를 나눌 수 있지만,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맡기십시오. 어느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제 십대 아들들은 그 누구의 말보다 제 남편과 저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듯했습니다. 때때로 제 아들들은 또래들의 압력에 굴복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조언을 해 준 현명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부모로서의 우리 역할을 알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기울여 들었으며 우리의 지도를 지지했으며 자녀들을 우리에게 다시 인도해 주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는 필요 사항이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들께 마음에서 우러난 몇 마디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남편이 이라크에 배치되었던, 다섯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2월 초에 이라크로 떠났을 때 우리에게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세 대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까지 차 세 대 모두가 고장 났으며 그 중 두 대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열일곱 살 된 아들은 복음이 참된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저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신권의 축복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모두 기억나지 않지만 이 시기 동안에 돌보아 주시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여러 번 축복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가정 복음 교사께 부탁하면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항상 알았습니다. 두 분 다 저의 차를 고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필요했던 신권 축복을 줄 수 있었고 그 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주었습니다.”

헌신적인 가정 복음 교사들은 이 가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이 편부모 가족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고 신권 축복을 줄 때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독, 대제사 그룹 지도자, 장로 정원회 회장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신권 축복을 필요로 하며, 우리의 훌륭한 독신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십 년 전 가족 선언문을 발표하셨을 때 “서서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 예언적인 선언은 주님의 “가족에 관한 표준과 교리와 관습”³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세상은 여성과 어머니의 역할을 지시하려 합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화려한 경력과 소속



지도자들은 자녀를 맡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존중함으로써 지지해 줍니다.

단체가 필요하며, 여력이 있을 경우에 자녀를 가지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로운 역할은 갈수록 구식이 되어갑니다.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세상이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몇 분간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상호부조회 회원으로서 가족 단위를 양육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자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에 속하며 모든 가족은 강화되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부가 되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우선 저의 어머니와 할머니이며, 다음으로는 우리가 거주했던 여러 와드의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가정을 이룸으로써 오는 기쁨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2006년 1월에 시행된 것으로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과 활동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과 활동은 모든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융통성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임과 활동이 여러분의 모든 자매들의 가정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방문 교육은 가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방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문 교사가 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방문 교사는 한 자매를 영적으로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필요 사항을 평가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복지 위원회 모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방문 교사가 확인한 영적 필요 사항과 현세적 필요 사항에 관해 보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결혼하신 분들은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점으로 인해 여러분의 배우자와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자신감을 키워 줄 때 남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해.”라는 단순한 한 마디 말이 가장 암울한 날조차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의롭게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인 우리의 역할은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며, 동등한 동반자로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도 그와 같이 합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 참으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지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모로나이서 8장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졌노니.” 이에 덧붙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투와 같이 사랑의 띠로 몸을 두르라. 이는 완전과 사랑의 띠니라.”(교리와 성약 88:125) 저는 여러분이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외투를 두르고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감싸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가족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외투로 감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고든 비 힝클리 회장, “Rejoicing in the Privilege to Serve”,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6월 21일, 22쪽 참조.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04년 10월, 49쪽.
3.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98쪽.

천국의 가정, 영원한 가족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가정을 세움

제가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제일회장단을 대표하게 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베드나 장로님, 페리 장로님, 그리고 파킨 자매님의 말씀을 통해 영감을 받고 교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정이 의로운 생활의 기초이며, 다른 어떤 조직도 이를 대신하거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성취할 수 없다.”¹는 것을 상기하며 가정과 가족이라는 주제에 모아졌습니다.

가정은 나무나 벽돌, 또는 돌로 지은

집 이상의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희생과 존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영원은 짧은 여정이 아니기에 지혜롭게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고요함과 바람, 햇빛과 어두움, 기쁨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할 경우, 우리 가정은 지상에 있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세상 여정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영원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운명짓습니다.

어떤 후기 성도 가정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씩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가족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이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어떻든 간에 가족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계자이신 주님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25) 후에 그분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132:8)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교리와 성약 88:119; 109:8 참조)

우리 중에 누가 어디에서 이 청사진보다 더 현명하고 올바르게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청사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집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건축 요건들을 충족하는 “반석 위에”(마태복음 7:24, 25; 누가복음 6:48; 제3니파이 14:24, 25) 지은 집, 즉 도처에 변화와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의심의 바람과 반대의 폭풍, 그리고 역경의 폭우에 견딜 수 있는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주님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가정의 설계자가 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전체 공사에서 주요 부분을 책임지는 하청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은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건축가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추가하여 우리는 또한 교회 부름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봉사하여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과 생활에서 얻는 교훈,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현명한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니파이의 동생인 야곱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야곱서 3:1)

영감에 찬 이 권고의 말씀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수정같이 맑은 물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도덕, 외설물, 폭력, 마약 및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수많은 나쁜 것들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 즉 책임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야고보서 1:27) 않게 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폭풍이 몰아치는 죄의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훈련하는 데는 그들과 함께하고, 시간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우리는 가족에게 확고한 모범을 보여야 하며, 권고와 인도를 위한 시간 뿐 아니라 가족 각자와 함께 개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앞에 놓인 과제로 인해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도움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녀들

개개인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열렬하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고통을 덜어주고, 더 많은 범법을 예방하고, 사람의 영혼에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족을 위한 그러한 인도가 필요한 것 외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책임지는 직분에 부름 받았습니 다. 감독이나 보좌, 신권 정원회 지도자나 보조조직 지도자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회원들 가운데는 가족 중 일부만 회원이거나 저활동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등을 돌려 그들의 간청이나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우리는 행하도록 부름 받은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도움은 기도를 통해 옵니다.

미국의 어느 저명한 판사는 세계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범죄와 위법 행위를 줄이고 우리의 삶과 국가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려깊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옛 습관인 가족 기도를 다시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가족 기도가 옛 습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종 인용되는 다음 격언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머무른다”

주님 자신도 우리에게 가족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 받게 하라.”(제3니파이 18:21)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어떤 부름이든 지도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책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서 감히 우리를 돕는 하늘의 도움 없이 이 위험한 필멸의 여정을 떠나려 할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을 믿는 신앙과 신뢰로 기도드립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우리는 봉사의 본모기를 주님의 생애에서 찾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수님의 생애는 선행으로 밝게 비치는 서치라이트와 같습니다. 그분은 발을 저는 사람의 사지에 힘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의 몸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비유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누가복음 10:30~35 참조) 간음죄로 끌려온 여인에게 보이신 친절을 통해 그분은 동정 어린 이해심을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8:3~11 참조) 그분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25:14~30 참조)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잘 준비시켜 오셨습니까.

우리는 각자 신권 지도자든 보조조직 역원이든 자신의 성스러운 부름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 받은 일을 위해 성별 받았습시다.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우리가 교회 부름에서 책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강화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 부름에서 행하는 봉사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래 전,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에 위치한 천 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큰 와드의 감독으로서 저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저는 와드 구역 내에 있는 한 약국 주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일찍 한 어린 소년이 그의 가게로 와서 음료수 카운터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한 뒤 봉투를 놓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봉투를 살펴보니 그것은 금식 현금 봉투였는데, 봉투에 우리 와드 이름과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게에 왔던 소년에게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저는 즉시 그가 우리 와드에 있는 어느 저활동 가족의 한 집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보인 반응은 우리 집사 중 한 명이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한 금식현금을 갖고 일요일에 가게에 가서 먹을 것을 샀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에서 오는 충격과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그 소년에게 교회의

신성한 기금에 대해 가르치고 집사로서 그의 의무는 그 기금들을 수집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그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을 향해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도록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불빛이 거의 없었지만, 저는 방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가구들은 몹시 낡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자신도 지쳐 보였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날 아침 그녀의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집에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실직한 지 꽤 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식량뿐 아니라 그 작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집세를 낼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식 기금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습시다. 그 소년이 가게 앞을 지날 때 너무도 배가 고팠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급히 그 가족에게 먹을 음식과 거처가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와드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그 남편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었습니다.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로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 부름에서 행하는 봉사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 지, 누구를 만나야 할 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영감이 올 때, 그 영감에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각을 거듭할 수는 있으나 오직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참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밀턴은 그의 시 리시다스에서 이렇게 썼습시다. “주린 양은 위를 바라보지만 먹이를 먹지 못하는도다.”(125절) 주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 너희가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에스겔서 34:2~3)

우리의 책임은 양 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소중한 양, 이 연약한 어린 양들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우리 직계 가족의 가정과 확대 가족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부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요한복음 10:1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을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기꺼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인생 길을 가다가 때로는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도로 표지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르는 우회 도로를 찾게 될 뿐입니다. 무관심과 이기심과 죄악은 모두 인간을 영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다가 나중에야 자신들이 슬픔과 고통의 피리 소리를 따라갔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95년 제일회장단은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떨어져 간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명하며 “돌아오라는 권유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특별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돌아와 한 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행복을 다시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맞아 들이며 기꺼이 여러분을 돕고 위안을 주고자 하는 손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힘과, 사랑과, 충성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으며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구조의 손길을 내밀 기회를 좀더 절실히 인식하게 해 줄 것입니다. 잭이라는 소년의 가족을 예로 들어 봅시다. 잭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가 열일곱 살이 되던 어느날, 그들은 격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요. 집을 나가겠어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구요.” 그런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화가 날대로 난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가에서 우는 어머니를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앞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려 할 때 그는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잭, 네가 집을 떠나는 책임의 대부분은 나한테 있구나. 이점은 정말로 미안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것을 알아두거라. 나 역시 네게 좀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애쓰마. 널 사랑하고, 난 언제나 널 사랑할 것이란 사실도 기억하거라.”

잭은 아무 말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버스에 앉아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는 동안 그는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고, 아버지로서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돌아오라는 권유를 했으며, “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여름 하늘에 울려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잭은 그 다음은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 준 것과 같은 성숙함과 선함, 그리고 사랑을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잭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표를 샀고,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참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정이 막 지난 후에 그는 도착했고, 집에 들어가 불을 켜었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떨군 채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짙은 보자 의자에서 일어났고, 그들은 달려가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짙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었던 그 마지막 몇 년간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자존심을 자제하여 아들이 결손 가정의 결과로 생겨난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 전에 그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친 아버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 즉 자주 느꼈지만 좀처럼 표현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 결속시키는 끈이자 치유하는 유향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울리는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천둥처럼 울립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12) 후에 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라”(교리와 성약 42:45)

주님의 청사진을 따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구조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 각각의 일들은 집을 가정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과 교회 부름에서 신성하고 엄숙한 책임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교회 부름을 완수할 때 지혜와 영감과 확고한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각각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교회 부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기술을 다해 짓고

지름길을 택하지 말며, 그분의 청사진을 따릅니다. 그러면 건축 감독관인 주님께서는 오래 전의 건축가였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기록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열왕기상 9:3)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같은 가정과 영원한 가족을 갖게 될 것이며 아울러 다른 가족들을 돕고, 강화하고,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가장 겸손하고 진지하게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또한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쪽.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 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암묵하게 선언한다.

모 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특색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 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키 준다.

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편성하여 땅에 출산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 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 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암묵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랑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가 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태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인이나 기아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 리는 순결에 관한 설약을 여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화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 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써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친구들



선교 사업에 대해 감사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가 영국까지 타고 간 배는 7월 1일 밤 플리머스에 닿을 내렸습니다. 배를 탔던 우리 세 명의 선교사들은 런던행 임항 열차를 타고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랭커셔 프레스턴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길고 외로운 기차 여행 끝에, 저는 역에서 동반자를 만났고, 그는 저를 북스홀 채플에서 가까우며 1837년에 첫 번째 후기 성도 선교사의 설교가 있었던 우리의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제 동반자는 우리가 마을로 가서 길 전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저에게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섭게 보였습니다. 때는 극심한 대공황 시기였고 특히 랭커셔는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발에 나무로 된 나막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힘든 시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서양인이었고 그들은 랭커셔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낙담했습니다. 저는 저의 선한 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제가 제 시간과 아버지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매우 짧은



힝클리 회장은 젊은 시절 영국 제도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경험을 들려 준다.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든, 너의 편지를 받았다. 단 한가지만 제안하고 싶구나. 네 자신을 잊어버리고 일하러 가거라.” 같은 날 아침에 제 동반자와 저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35)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뒤에 따랐던 아버지의 편지는 제 영혼 깊숙이 파고 들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잊고 그분께 봉사하는 일에 제 자신을 바치겠다고 성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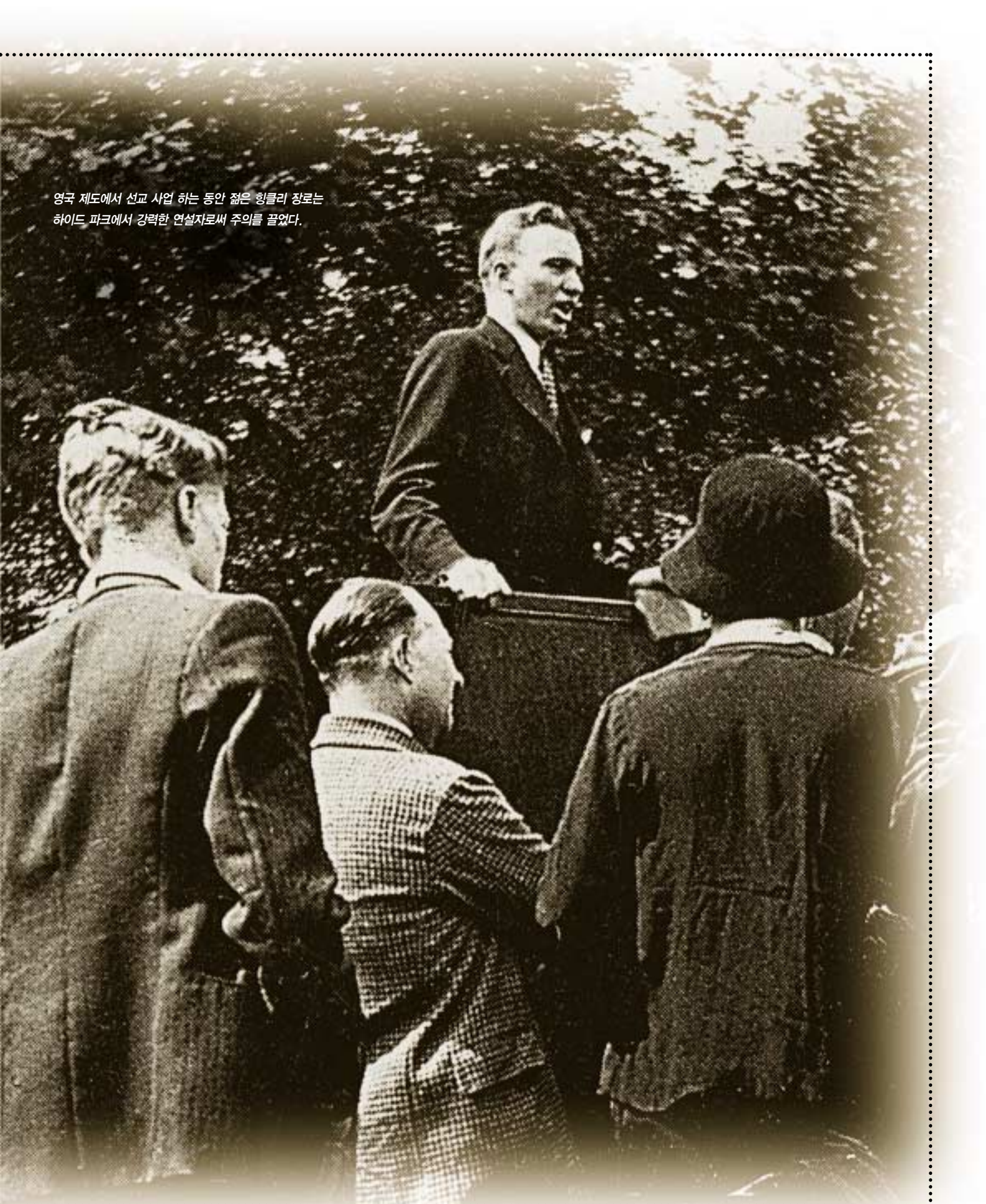
1933년 7월의 그날은 제 결심의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제 인생에 들어왔고 새로운 기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고 저는 햇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원히 감사드릴 풍요롭고 훌륭한 선교 사업의 경험을 얻었습니다.

지상에 회복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세상으로 가져가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자기 자신의 신앙, 용기, 진리의 선언을 할 특권과 기회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Taking the Gospel to Britain: A Declaration of Vision, Faith, Courage, and Truth”, 에서 발췌. Ensign, 1987년 7월호, 2~7쪽 및 “Missionary Journal”, Ensign, 1987년 7월호, 8~11쪽.

영국 제도에서 선교 사업 하는 동안 젊은 힝클리 장로는
하이드 파크에서 강력한 연설자로서 주의를 끌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침례 성약을 기억하고 성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옳은 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정직할 것입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욕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할 것입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신성하고 순수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해로운 것들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정숙한 옷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만을 보고 읽을 것입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음악만을 들을 것입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선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풀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지금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살 것이며 영원한 가족을 갖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 그 또한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니라” (모사이사서 2:22)

린다 매글비



다니엘과 다른 소년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뽑혀 그 나라의 풍습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왕은 소년들에게 고기와 술을 먹이라고 명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친구들이 10일 동안 건강에 좋은 음식과 물만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일 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모든 어린이들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1장 참조)

열 살인 트레이스와 그의 친구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도중 한 쇼가 시작됐고 트레이스는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안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쇼를 볼 수 없어.” 친구들 중 두 명 또한 그 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트레이스의 엄마는 그가 받았던 느낌은 옳은 것을 택하라고 말해 주는 성신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레이스와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평화로운 느낌을 축복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대에 순종했으며, 우리는 오늘날 트레이스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올바르게 참된 것을 알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활동

나의 복음 표준 카드를 만들기 위해 친4쪽을 떼어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 다음 검은 선을 따라 오린다. 다음 활동 중 한 가지를 해 본다.

1.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원을 그려 앉는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카드 중 하나를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돌린다. 노래를 멈추고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표준을 큰 소리로 읽은 후

그것이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어떻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한다. 다시 진행한다.

2. 암기할 카드를 하나 선택하고 일주일 동안 그 표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매일 그것을 읽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표준을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십계명 포스터를 전시하거나 칠판에 십계명을 적는다. (출애굽기 20:3~17참조) 20장의 각 종이 조각에 1부터 10까지의 숫자 하나 씩을 두 번 반복하여 적는다. 종이를 뒤집어서 바닥에 흩어 놓는다. 두 명씩 짝지어(나이 어린 어린이와 좀 더 나이 많은 어린이) 나이 어린 어린이가 콩 주머니를 종이 위에 던지게 함으로써 짝짓기 게임을 한다. 종이를 뒤집고, 나이 많은 어린이가 다른 종이 위에 콩 주머니를 던지게 한다. 만약 그 종이의 숫자가 첫 번째 숫자와 같으면, 그 종이들을 치우고 어린이들에게 그 계명을 소리 내어 암송하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하거나 보여 주게 한다. 숫자가 다르면, 그 두 장의 종이를 원래대로 뒤집고 다음 두 어린이에게 차례를 준다. 모든 계명을 다 나눌 때까지 계속한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설명한다.

2. 정거장 활동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팔복에 대해 배우도록 돕는다. 산상 수훈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작한다. 복음 그림 패킷 212(산상 수훈)를 사용한다.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이 정거장들을 돌게 한다. 각 정거장에서 팔복을 보여 주는 복음 그림 패킷을 사용한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지 토론하고, 원리를 강화시켜주는 노래를 부른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는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음 그림 패킷 217을 보여준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구주에 관한 노래를 부른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는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음 그림 패킷 311을 보여준다. (땅속에 칼을 파묻는 앵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친절에 관한 노래를 부른다. ●

확고한 결심

“너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 것을 너희는 오늘 택하라” (모세서 6:33)



1997년에서 2005년까지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던 이 이스라엘 페레스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발췌. 펄빈 레빗, 교회 잡지

제가 겨우 여섯 살이었을 때 제 부모님과 세 명의 형들은 과테말라 캣살테낭고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지혜와 용기가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제 부모님과 훌륭한 초등학교 교사님들은 저에게 복음의 영원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순종한다면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짧은 말씀을 하라는 지명을 받았을 때, 저는 R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하나님께서 널 축복해 주실 거고, 모든 게 잘 될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R을 발음하는 데 다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저는 하얀 바지를 빌려 입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지는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바지를 안으로 접어 넣고 몇 바늘 꿰매 주셨습니다. 바지가 찢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물에 젖어 무거워진 바짓단은 그만 뜯어졌습니다. 저는 빌려 입은 바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것은 항상 무릎을 꿇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기를 기억하라는 뜻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가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고, 결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며,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열여섯 살이었을 때, 한번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을 아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모두에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술을 마시라고 권하고 싶군.”

나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술을 마시고 싶다면 다른 데 가서 마세요.”

이 남자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체격이 크고 힘도 매우 셨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술 한잔을 제게 가져와 말했습니다. “네게 이걸 먹이겠어!”

“안 하는 게 좋을 걸요. 비참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는 저를 붙잡아 강제로 술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남자에 맞서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훨씬 후, 제가 남편이자 아버지, 사업가가 되었을 때, 저는 과테말라 공화국 대통령과의 오찬에 초대 받았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한 번만 확고한 결정을 내린다면, 유혹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창조의 규모는 매우 광대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살아 있으며 제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실 방법들을 찾고 계십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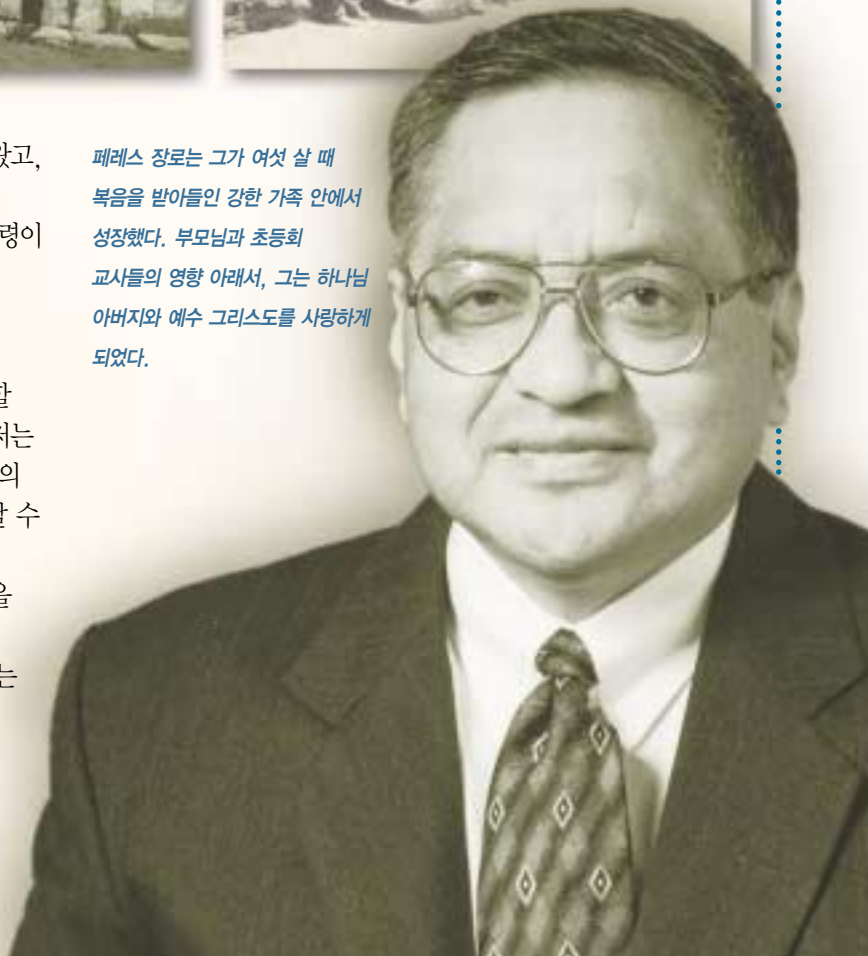
다른 많은 손님들과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고, 웨이터들은 모든 사람들이 건배를 할 수 있도록 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으로 제 컵을 덮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페레스 씨, 저와 함께 건배를 하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각하의 성공적인 통치를 빌어 주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술을 마시겠냐고 물으시는 거라면 저는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는 지금 당장 떠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닙니다,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셨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후에 대통령은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페레스 장로는 그가 여섯 살 때 복음을 받아들인 강한 가족 안에서 성장했다. 부모님과 초등학교老师们的 영향 아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선지자의 순교

1844년 4월, 조셉 스미스 회장은 십이사도들에게 미국 동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주었습니다.

윌라드 리차즈와 존 테일러를 제외한 모든 십이사도는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했지만, 그는 선지자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짐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선지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우드럽 장로는 그가 슬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드럽 장로도 웬지 몰랐지만 슬펐습니다.

이제 형제님은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나려 합니다. 우드럽 형제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평화롭게 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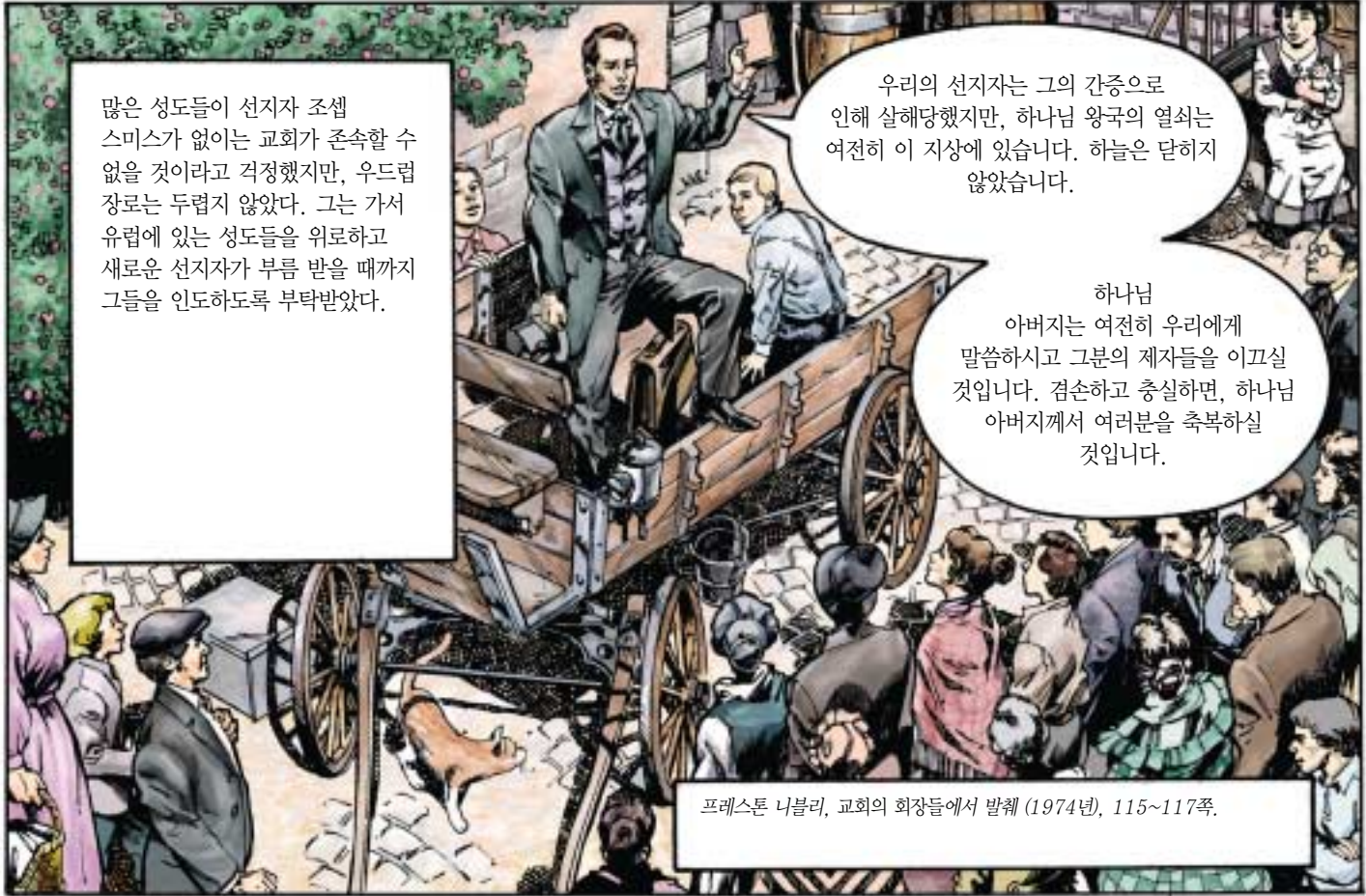
두 달 후, 우드럽 장로는 메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드럽 장로님, 들으셨습니까? 선지자 조셉이 살해당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우드럽 장로는 나무에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즉시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전에 왜 그렇게 슬펐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선지자 조셉을 이 지상에서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없는 교회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우드럽 장로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가서 유럽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선지자가 부름 받을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도록 부탁받았다.

우리의 선지자는 그의 간증으로 인해 살해당했지만,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여전히 이 지상에 있습니다. 하늘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겸손하고 충실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프레스톤 니블리, 교회의 회장들에서 발췌 (1974년), 115~117쪽.

버터 접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 분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22)

패트리시아 알 존스
실화에 근거함

“나 머지 가족들이 와요.” 아테나는 어머니를 향해 외쳤다. “엄마 생일 저녁 식사 시간에 딱 맞게 도착했어요!”

“식탁에 꽃병이랑 버터 접시 좀 놔 주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테나가 아름다운 유리 장식이 새겨진 접시를 식탁에 놓자, 햇빛은 접시를 통과해 비치면서 벽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 냈다. 어머니는 섬세한 유리 문양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녀가 매우 자주 들었던 이야기를 회상했다.

열두 살 된 루이자 비숍은 여동생 에머가 탄 오래된 수레 흔들 의자를 조심스레 흔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얀 베개만큼이나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다 디프테리아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가족 중 어린아이들을 덮쳐, 루이자의 다섯 형제들 중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과로와 슬픔에 지쳐, 루이자의 어머니 또한 병이 났다. 그들의 세상에 행복이 결코 다시는 비치지 않을 것 같은 때에 어린 에머가 태어났고, 이제 회복이 된 루이자는 어머니가 휴식을 취해

생일 축하



“항상 십일조를 바치고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세상의 부채, 하늘의 부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1쪽.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여동생을 사랑으로 돌보았다. 에머는 그 보답으로 언니를 매우 사랑했다.

세월이 지났고, 에머와 루이자는 더욱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에머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루이자는 결혼을 했고 그녀의 남편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났다. 에머는 매일 루이자의 통나무 집에 가서 일을 돕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어느 날 에머는 청소를 하던 중 잠시 멈추고, 루이자가 반짝이는 유리 버터 접시의 버터를 모두 덜어 단지에 넣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좋을 텐데,” 라고 에머는 생각했다.

루이자는 설거지통 쪽으로 걸어가 주전자에 있는 깨끗한 물을 접시에 부었다. 그런 후 조심스럽게 접시를 닦은 후 물기가 마르도록 행주 위에 올려놓았다. 에머를 돌아다보며, 그녀는 버터 단지를 건네 주었다. “자, 에머, 이걸 십일조로 감독님께 갖다 드리겠니.”

에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싫어!” 그녀는 소리쳤다. “감독님보다 언니에게 버터가 더 필요해.”

루이자는 입을 다물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재미있다는 듯 반짝였다. “에머.” 그녀는 부드럽게 꾸짖었다. “십일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야. 내가 선교 사업을 위해 남편을 그렇게 멀리 떠나 보내는 큰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었다면, 약간의 버터를 포기하는 작은 일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어.”

에머는 설득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처럼 가진 게 적을 땐 큰 일이야.”

“걱정 마”, 루이자는 웃으며 말했다. “내겐 주님께서 주시리라는 신앙이 있어.”

에머가 자세히 보니 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루이자는 자신이 한 말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었다! 에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버터 단지를 가지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나섰다.

루이자의 통나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에머는 문가에

멈추어 서서 입을 딱 열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버터 접시가 다시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 안에는 버터 한 파운드가 들어 있었다. 에머의 눈은 그녀의 입이 물을 수 없는 질문을 했다. 저 버터는 어디서 생긴 거야?

루이자는 웃었다. “주님이 주실 거라고 내가 말했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찬장에서 깨끗한 접시를 꺼내 그 안에 버터를 놓았다. 그런 후 그녀는 설거지 통으로 다시 가서 깨끗한 물로 채웠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유리 버터 접시와 뚜껑을 씻었다. 그러나 그것을 마른 행주에 놓고 천천히 말리는 대신, 물기를 닦아서 두 가지 다 에머에게 건네 주었다.

“네가 이걸 가졌으면 해,”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이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실 거라는 걸 기억하기 바래. 에머, 십일조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렴.” 에머가 버터 접시를 받았을 때 그녀의 눈은 눈물로 촉촉해졌다.

평생 동안 에머는 그녀가 배운 교훈을 기억했다. 매년 그녀의 가족이 생일에 모일 때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 주었다. 에머가 죽은 후, 그 버터 그릇은 가족들에게 대대로 물려졌다. 그리고 그 접시를 본 모든 사람들은 에머가 어떻게 항상 십일조를 내는 법을 배웠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에머의 아들 제임즈 리차드 로프트하우스의 일기에서 발췌.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앨마서 7:22)

아론 신권과 청남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2세
청남 본부 회장

곧 열두 살이 되는 소년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

아론 신권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시기입니까! 제가 열두 살이 되기 전후에 저는 집사로 성임 받는 일이 너무나 기다려졌는데,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여러분이 열두 살이 되기 전에, 여러분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님을 만나서 아론 신권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합당성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열두 살이 된 후에, 지지를 묻기 위해 여러분의 이름이 성찬식 모임에서 불려질 것입니다. 아론 신권이 여러분에게 수여되고 여러분은 집사 직분에 성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이 훌륭한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초대받을 것입니다.

아론 신권

아론 신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다음 세 가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즉 형제애, 교훈, 그리고



봉사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달성하고, 함께 봉사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하는 일로 인해 약간 긴장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지명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 줄 것이며, 여러분도 이후에 새로운 집사를 도울 것입니다.

신권회 모임에서 여러분은 아론 신권이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교리와 성약 13:1)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교리와 성약 20:59)하는 것이 아론 신권 소유자의 의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 원리들과 구주를 따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입니다. 그것은 멜기세덱 신권 외에도 일생 동안의 봉사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워드 또는 지부와 지역 사회 일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관여할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의 재능은 자라고 발전할

사진 촬영: 루스 드워로드, 모음이 포토를 취함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 직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들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상

제일회장단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청남들이 힘써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상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을 통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 지도자들, 감독 또는 지부장,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몇 해 동안 여러분은 매일 경전을 읽고, 가족을 위해 몇 차례 식사를 준비하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옷을 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의 “나의 개인 일지” 부분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집사, 교사, 그리고 제사 의무 증서를 획득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상 메달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훌륭한 성취이지만, 프로그램의 진정한 축복은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과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성전에서 결혼하고 충실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도록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차 대회 신권 모임 및 그 이상의 것들

와드나 지부에서 갖는 주례 아론 신권 모임 외에도 매년 4월과 10월에 여러분은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전세계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신권 의무를 행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또한 일년 내내 노년의 모임과 다른 특별한 활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이고 지적이며 사교적인 축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호 향상회

청남과 청녀 조직을 위한 주례 활동을 상호 향상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와드와 지부의 청소년들이 사교적인 환경에서 함께 만나 일요일 모임에서 배운 복음 원리들을 적용해 보는 기회입니다. 집사로서 여러분은 상호향상회에서 열두 살과 열세 살의 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상을 받는 동안, 여러분은 경전을 공부하고,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며, 성전 엔다우먼트, 선교 사업, 결혼, 부모 역할에 대비해 여러분을 준비해 주는 다른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활동을 선택하는 데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제사가 될 때, 활동은 여러분의 관심 사항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 청녀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모든 청녀들과 건전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신권을 존중함

제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할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권을 존중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의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곧 갖게 될 신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

주

1. 제일회장단 서신, 2001년 9월 28일.

경전 인물



이 인형은 여러분이 경전 이야기를 할 때 경전에 나오는 젊은 여성들, 즉 에스더, 열 처녀 중 한 명, 혹은 여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형 그림을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색칠해서 오려낸 다음 막대 인형, 플란넬 보드 인형, 혹은 종이 봉투 인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머리와 옷을 각각 다른 색으로 색칠하세요. ●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막대 인형



플란넬 보드 인형



종이 봉투 인형



플란넬 보드 일요일 상자

상자를 만들어서 플란넬 보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일요일 활동 자료를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 요일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 크레파스, 마커펜, 가위, 자, 플란넬 또는 다른 천, 큰 상자(사진 참조), 그림, 사진, 복음 그림, 스티커(선택 사항)가 필요하다.

1. 플란넬 또는 다른 천을 상자 한 면의 길이와 넓이보다

3mm 작게 잘라서 풀로 상자에 붙인다. (사진 참조)

2. 상자의 나머지 부분을 원하는 대로 장식한다. 그림, 사진, 복음 이야기의 삽화, 혹은 안식일 활동을 하는 여러분 가족의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게임, 퍼즐, 그림 이야기, 그리고 리아호나 또는 초등학교에서 제공된 다른 활동들로 상자를 채우거나 여러분이 만든 것들을 사용한다. ●



힝클리 회장, 수술에서 회복

브리트리니 칼포드, 교회 잡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그의 95번째 생일 축하 모임 중에 청중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96년 동안의 삶에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대장에서 암에 걸린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그는 몇 주 안에 회복될 것처럼 보였으며, 이번 호리아호나가 인쇄 준비에 들어가고 있을 때 즈음에는 천이백만 이상의 교회 회원들을 인도하는 자신의 바

쁜 일정이 재개되기를 고대했다.

1995년에 교회의 제 15대 회장으로 부름 받았을 때, 힝클리 회장은 기자들에게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픈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70년 동안 전임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동안 선지자는 늘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정기 건강 진단을 받는 동안 그의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LDS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잡혔다. 종양은 2006년 1월 24일 복각경 수술, 즉 의사가 절개의 크기를 작게 하고 매우 작은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는 수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 힝클리 회장은 일주일 후 퇴원했다.

예상대로 그가 없는 기간 동안 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이 그의 업무를 처리했다.

교회는 힝클리 회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회원들로부터 쾌유를 비는 따뜻한 인사를 받았다. “힝클리 회장은 회복 기간 동안 교회 회원들이 보여 준 넘치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그의 측근 중 한 사람이 전했다.

그는 CBS의 저명한 뉴스 기자이며 “60분”(60

Minutes)의 진행자인 마이크 윌리스로부터 쾌자를 비는 인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10년 전 당시 노련한 저널리스트였던 윌리스 씨가 힝클리 회장에 관한 인물 소개를 썼을 때 만났는데, 윌리스는 후에 그 만남이 그의 가장 잊지 못할 경험들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윌리스 씨는 힝클리 회장의 수술 소식을 듣고, “존경, 사랑, 우정, 그리고 찬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부디 빨리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건강한 삶을 살아온 것 외에도, 힝클리 회장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여행한 회장으로 교회에서 알려져 왔다. 지난 가을만 해도 그는 13일 동안 전세계 10개 도시를 여행했다.

수술 전 마지막으로 그가 교회 전체에 모습을 보인 것은 2005년 12월 23일이었다. 그는 버몬트 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에서 위성 중계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했다.

힝클리 회장은 거의 일 년 전인 2005년 6월 23일에 2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95번째 생일 축하 모임을 가졌다. 96세까지 살았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0년)이 교회에서 가장 장수한 회장이었다.

힝클리 회장의 아버지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형제는 94세까지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암과 투병했으나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그가 청소년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힝클리 회장은 1995년 3월 12일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름 받기에 앞서 20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14년 동안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다. 당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그의 활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힝클리 회장은 84세 된 분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분으로 기억된

다. 활력에 넘치는 발걸음과 전혀 막힘 없는 낙천적인 정신과 밤 11시, 12까지 힘든 일들을 수행해 내는, 식을 줄 모르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면 누구든 그를 40대 초반 정도로 볼 것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행동도 젊

은이 못지 않게 힘차며, 또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을 사랑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굳세고 용감하게 서 계십니다”, 성도의 벗, 특별 부록, 1995년 6월, 2~4쪽) ■

도전에 감사하는 회원들

2005년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선교부의 두 자매 선교사들은 선교부 내의 회원들에게 귀에 익은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 당시 세계 어느 곳에 있던 교회 회원들에게와 닿는 질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물문경을 읽기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당시 교회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물문경을 읽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안타나나리보의 많은 회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연말까지 물문경을 읽으라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도전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브리트니 졸겐슨 자매 선교사와 캐리 쇼우 자매 선교사가 나눈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이러한 성공에 대한 보고는 힝클리 회장의 인도와 지시에 대한 뜨거운 감사 표시의 하나이다.

그러한 권유가 리아호나와 엔사인 잡지 2005년 8월호의 제일회장단 메시지에 발표되었을 때, 힝클리 회장은 이전에



제일회장단의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전 세계의 회원들이 물문경을 읽고 있다. 이 책의 전체 또는 일부를 100개 이상의 언어로 읽을 수 있다.

몇 번 읽었는지에 상관없이 연말까지 물
문경을 다 읽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영이 더해질 것이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이 강화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시다
는 실재성에 대한 더 강한 간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5년을 마치면서, 졸겐슨 자매 선
교사와 쇼우 자매 선교사는 이러한 약속
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에서
성취된 것을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
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교부 중의 하나
이기는 하지만, 이곳의 회원들도 마찬가
지로 선지자의 지시를 듣고 따릅니다” 라
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의 삶과 구도자
들과 최근 개종한 사람들의 삶에서 근면
과 순종의 결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
다.”

최근에 개종한 한 사람은 물문경의 마
지막 페이지를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읽기를 끝마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5년 12월 31
일 저녁 7시 5분이었다.

독자들이 12월 31일 밤에 다 읽었든
그 이전에 다 읽었든, 그 목표를 이룬 것
은 그 책의 메시지를 나누려는 신앙과 자
신감을 강화시켰다.

물문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읽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데이비드 워커 장로
는 그가 추구해 온, 그 책에 대한 새로운
간증을 얻게 되었다. “지금은 제가 간증
을 할 때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서 재확인시켜
주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워커 장로는 말했다.

비슷한 반응이 세계 전역의 교회 회원
들로부터 왔다. 산타 크루즈 볼리비아 피
레이 스테이크 아분단시아 와드 회원인
알테미르 구아나코마 아베 형제는 다시

물문경을 읽으라는 힝클리 회장의 권고를
읽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것을 행할 용기
를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
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 일
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목표를
성취했으며, 지금 제가 물문경을 읽고 있
는 동안 제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
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문경이 참되다는 사

실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이 놀라운 책, 우리 세
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티끌에서
나온 이 책이 세상의 구속주의 신성과 실
재의 또 하나의 증인으로 서 있기”때문에
온다고 힝클리 회장은 2005년 12월 솔
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인 모임에서 말씀
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를 드리며,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

“이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벨라드 장로가 선교사의 안전에 대해 말씀하다

“이 사업은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미
래에 일어날 일과는 상관없이 계
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십
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엠 러셀 벨라드 장
로가 2006년 1월 교회 선교사들 52,000
명의 안전과 복리에 대해 논하며 말했다.

그 달 초, 세 명의 선교사들이 임지에
서 생명을 잃었다. 한 명은 총에 맞아 사
망했고, 두 명은 자동차 충돌 사고로 사
망했다. 네 번째 선교사는 총상에서 완전
히 회복되었다.

벨라드 장로는 슬픔에 잠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제일회
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깃
들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
에게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있는지는 중요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한 명을 잃으면
온 교회가 슬퍼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은 비극에 대해 그 부모와 형제자매 그
리고 신권 지도자들에게로 향합니다.”라
고 덧붙였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때때로 폭력과 사고가 발생하지만, 후
기 성도 선교사들 중에 그러한 죽음은 극
히 드물다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19
살부터 21살까지의 젊은이들과 21살의
자매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 임지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
했다.

벨라드 장로는 전세계 343개의 선교



בל라드 장로가 교회는 전세계 343개의 선교부에 있는 52,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의 안전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부에서 그들이 봉사하는 동안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안전하도록 돕는 선교사 조직과 훈련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재검토했다.

- 개인적인 안전과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에 대한 훈련은 교회의 16개 선교사 훈련원에서 시작하여 선교 사업 중에 선교사 지역 대회와 구역 모임에서 계속된다.
- 선교사들은 항상 짝을 지어 일하며 자신의 동반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 자격을 갖추고 성숙하며 영감 받은 선교부 회장과 그들의 아내는 선교부 내의 젊은 선교사들을 “그들 자신의 자녀들처럼” 보살핀다.
- 선교부 회장 보조, 지역 지도자 및 구역 지도자들로 구성된 조직은 “우리가 어디에 선교사들을 보낼 것인지 살피고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 구축된다.”
- 특정 지역과 인근 지역의 안전에 대해 지역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회원들과

- 계속 협의한다. 선교사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지역들은 피하도록 지시한다.
- 차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자동차 안전에 대한 유의 사항을 제공한다.
- 자전거를 타는 선교사들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 훈련을 실시한다.
- 걸어 다닐 때, 선교사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걷도록 격려한다. 그들에게 소지품을 최대한 줄이고 그날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몸에 지니도록 지시한다. 도둑을 만나면 선교사들은 저항하지 말고, 대결을 피하며, 가진 돈이 얼마든 모두 포기하도록 훈련한다.
- “선교부 회장들이 자신의 지역 경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의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80명의 의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전역에서 전

임 선교사로 봉사한다. 또한 200명의 자원 봉사 간호사들과, 의학과 건강 관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보살피러 그곳에 나가 있다”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 안전과 청결을 위해 주기적으로 선교사 숙소를 점검한다. 필요할 때마다 선교사들을 다른 숙소로 이사 가게 한다. 벨라드 장로는 그러한 사건들이 구주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교회의 사업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끝맺었다. “조셉 스미스는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무엇도 이 사업을 멈출 수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

박물관, 기록적인 전시회에 작별을 고하다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전시회,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거의 1년 동안의 전시 후 2006년 1월 15일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기간 동안 박물관은 총 437,787명의 방문객으로 그동안의 1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사람들이 조셉을 보러 오고 싶어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라고 전시회 책임자인 마크 스테이커는 말했다.

1월 방문객 수는 총계에 계산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며칠 동안 전시회를 보기 위해 저녁에는 시간당 2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것은 시간당, 일일, 그리고 일 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깼습니다.” 라고 전시회에서 일한 박물관 자원 봉사자인 대럴 존즈는 말했다. “어떤 날은 저녁 6시 30분과 8시 30분 사이에 1,800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움직임 수조차 없

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7월과 12월이 전시회 기간 중 가장 바쁜 두 달이었다. 7월에는 64,452명의 방문객들이 미국과 세계 전역에서 박물관을 방문했다.

2005년 2월 4일에 개막한 이 전시회는 선지자의 부름을 완수하도록 조셉이 준비되고, 가르침을 받으며, 단련 받는 과정을 보여 준 진품 유물, 문서, 미술품 및 매체 상영물의 전시와 더불어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했다.

전시회는 처음 기록된 그대로의 경전 계시, 서한, 일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입었던 외투, 그리고 그가 순교시 입고 있었던 조끼의 일부도 전시되었다. 이러한 모든 유물은 복음이 회복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방문자들이 조셉 스미스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눌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조셉 스미스 전시회 방문자들이 그 박물관의 참석 기록을 갱신했다.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그들의 간증은 모두 기록되었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동안 회원들이 나누었던 그에 대한 간증들을 앞으로 올

세대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교회 기록 보관소에 영구 보관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 전시회를 보러 솔트레이크시티에 올 수 없었던 많은 청소년들

에게 그들의 간증이 영구 기록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간증을 써서 보내도록 했습니다.”라고 스테이커 형제는 말했다. 그러한 간증은 그 행사의 기념물로 계속 보존될 것이다.

전시회 설비가 철거되는 도중, 박물관 자원 봉사자인 린다 존슨 자매는 월터 래인의 그림 *마음의 소망(Desires of the Heart)*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기를 바라며 그 그림을 이미 내렸는지 보기 위해 커튼을 걷었다. 그 그림은 거룩한 숲에서 무릎 꿇은 소년 조셉을 묘사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그림이 내려지는 게 슬프니다.” 라고 존슨 자매는 말했다. 그 그림은 항상 그녀에게 특히 감명깊게 다가왔다. 스테이커 형제는 전시회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방문자 개개인이 무엇에



1800년대의 이와 같은 의료 기구들이 당시 7살이었던 조셉 스미스의 다리를 수술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이 실시되는 동안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가장 공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은 조셉이 지상에 있는 동안 행했던 일을 직접 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박물관 내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계속해서 기리는 영구적인 공간이 두 군데 있으며, 이는 교회 회장들 전시관과 물몬경의 탄생 전시관이다. ■

아프리카 어린이의 팔에 놓는 주사 한 대

정 치적,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대륙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들어 본 적도 없는 질병인 홍역으로 매년 282,000명의 어린이가 죽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드모안 핀들리 장로와 조이스 핀들리 자매는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실시된 홍역 퇴치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부부 선교사로 부름 받을 때까지 이 질병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홍역 퇴치 운

동은 적십자사, 유니세프,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세계 보건 기구 및 그 외 기관들이 후원하는, 아프리카의 2천만 어린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운동이다.

봉사 기간 동안, 핀들리 부부 선교사는 아이보리 코스트 회원들이 수백 명씩이나 그 캠페인을 성공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자원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의료 훈련을 받은 교회 회원들이 예방접종 장소에서 도움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그 캠페인을 장려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집의 문을 두드렸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족과 어린이들을 함께 모으는 일을 도왔다.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 캠페인을 위한 그림을 제출하여 돕기도 했다. 매우 높은 참여에 기여한 성도들은 “그들이 이 특별한 기회를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핑클리 회장에 보여 주기”를 바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 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회적 불안 때문에, 핀들리 부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전임 선교사들은 초기 캠페인을 끝내지 못한 채, 2004년 11월에 대피했다. 캠페인은 그들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돌아간 2005년 8월까지 연기되었다.

핀들리 부부 선교사는 이번에는 그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교회가 기금과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호 기관들을 만났다. 교회가 자원 봉사자들을 제공하고,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와 같은 인쇄물을 제작하며, 적십자사에 메가폰, 유니폼 및 건전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홍역 퇴치 운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보건부는 교회의 참여에 대해 열의를 보였으며, 교회의 모든 공헌을 TV를 통해 발표하면서 교회를 캠페인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지명했다.

그때부터 핀들리 부부 선교사는 캠페인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10살 된 로슬라인 디케이의 그림이 인쇄물에 게재되기 위해 채택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탄자니아 및 말라위 캠페인에서도 사용되었다. 그 지역 스테이크 회장들의 인도 하에

그 지역 스테이크 회장들의 인도 하에

일하면서, 핀들리 부부는 실무팀으로 지역 복지 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는 아이보리 코스트의 23개 와드와 지부에서 온 자원 봉사자들의 일을 조정했다.

회원 자원 봉사자들의 주요 책임 중 하나는 일반 주민들이 예방접종 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을 아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홍역의 위험에 대해 이웃들을 교육시켰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데려오도록 했다. 그들은 종종 시간을 들여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직접 알려 주기도 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예방접종 시설로 데리고 오기도 했다. 전임 선교사들 또한 돕기를 원했으며, 이들은 가방에 캠페인 스티커를 붙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예방접종을 받게 하도록 격려했다.

예방접종 시설이 수도 아비장만 해도 보건소, 마을 추장의 집, 그리고 주차장 등과 같은 장소에 수백 개나 설치되었다. 몇몇 시설은 단지 길가에 세워진, 플라스틱 지붕으로 된 작은 건물이다.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이 집단으로 찾아왔다. 어린이들이 줄을 지어 섰으며, 어떤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왔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왔다. 사람들이 정해진 예방접종 시설에 오는 발걸음이 끊기자, 팀들은 의약품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접종 받지 않은 어린이들을 찾아 봄비는 시장과 구역을 돌아다녔다.

700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아이보리 코스트의 홍역 캠페인은 대 성공을 거두었다. 50퍼센트만 되어도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보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나라에서 봉사자들은 거의 8백만 명



드모안 핀들리 장로와 조이스 핀들리 자매가 홍역 퇴치 캠페인이 성공하도록 도운 많은 자원 봉사자들 중 몇몇과 사진을 찍기 위해 서 있다.

의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목표의 87퍼센트를 달성했다.

회원들이 바친 자원 봉사 시간은 총 40,000시간이었다. 다채로운 배지를 단 회원들을 어디서든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은 꽤 좋은 평판을 얻고 잘 알려지게 되었다.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의료 구역에서는 회원들만이 유일하게 동원된 자원 봉사자들이었다. 모든 의료 구역은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느꼈고, 향후 캠페인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연락해도 좋은지 물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느끼고 보여준 사랑의 정신이었다. 회원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그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딕보우 놀레바: “캠페인이 모두 잘 진행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저는 여러 번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살피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레이몬드 베다: “자원 봉사자로 봉사하면서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마치 선교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프랭크 드롤드 톱과: “매일 보건부 사람들이 와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것은 지역 사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는 봉사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진 보소코 쿠아씨: “정말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나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전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던 방법으로 사람들과 말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을 열고 선교 사업과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

2006년 6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6월호에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의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8쪽과 9쪽에 있는 “계명을 지킴”을 참조한다.

1. 나의 복음 표준이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도록 돕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칠판 위에 나의 복음 표준 포스터나 목록을 전시한다.(이번 호의 친4쪽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내 책자의 뒷표지 참조) 나의 복음 표준에 해당하는 계명이 들어 있는 참조 성구들을 종이 쪽지 위에 쓴다. 아브라함서 3:25, 모사이야서 18:10, 모사이야서 4:10, 출애굽기 20:15~16, 출애굽기 20:7, 출애굽기 20:8, 출애굽기 20:12, 교리와 성약 89, 교리와 성약 42:40~41, 신앙개조 1:13, 교리와 성약 25:12, 요한복음 13:34~35, 교리와 성약 109:12~13. 어린이 한 명에게 종이 쪽지 하나를 선택하여 참조 성구를 읽도록 부탁한다. 모든 어린이들이 그 성구를 찾아보게 한다. 어느 계명이 그 성구에 해당하는지 질문한다. 종이 쪽지를 선택한 어린이가 속한 반의 어린이들에게 그 계명에 해당하는 하나의 표준을 찾게 한다. 다른 반에게 우리가 그 표준에 따라 살 때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묻는다. 시간이 되면 나머지 종이 쪽지를 가지고 반복한다. 순종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들에 대해 간증한다.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위한 제언: 나의 복음 표준 중 각각 하나가 쓰여진 종이

쪽지를 대여섯 장 준비한다. 한 어린이에게 바구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그 표준을 지키는 방법을 몸짓으로 보여 주게 한다. 어린이들 모두가 순종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그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들 또한 몸짓으로 보여 주는 것을 돕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나의 복음 표준이 우리가 옳은 일을 택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2. 어린이들이 충실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찾도록 토론을 이끈다. 나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성구를 찾게 한다. 좀 더 어린 어린이들은 그림의 단서에서 원리를 알아 맞힐 수 있다. “가르쳐진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축복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 노래를 한 곡 부른다. 예를 들면, 십일조는 말라기서 3:8~12 또는 초등학교 그림 3-26(십일조 봉투를 가진 소녀)을 보여 주고 십일조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안식일은 교리와 성약 59:12~19 또는 초등학교 그림 3-25(교회에 가는 가족)를 보여 주고 안식일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종이와 크레용을 나눠 준다. 종이를 반으로 접게 한다. 한 쪽에는 오늘 배운 계명 중 하나를 따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 다른 쪽에는 약속된 축복 중 하나를 그릴 수 있다. 그림 위에 참조 성구를 적게 한다. 각 어린이들이 그림을 집에 가져가 가정의 밤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붙여 놓도록 장려한다.

3. 노래 발표: “사랑하는 자녀들아”(찬송가 40장). 어린이들에게 춤과 폭풍우

치는 날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정말 추운 상태를 역할극으로 표현한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 들어와 새빨강계 달아오른 난롯가에 앉아서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다”고 말한다. 도우미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 준다. “이러니까 따뜻하고 기분 좋지 않아요?”라고 묻는다. 우리에게는 춤과 폭풍우 치는 날처럼 느껴질 때가 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노래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더 따뜻하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제나 주 지키며”라는 부분을 부르고,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요?”라고 묻는다. 어린이들과 함께 그 부분을 노래한다. 여러분이 그 다음 부분을 노래할 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언제 그것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도록 부탁한다. 그 다음 소절을 부르고, 음의 높이를 표시한다. (손을 더 높게 또는 낮게 올려서 각 음표의 음 높이를 표시한다) “언제나 주 지키며.” 반응을 본 후 복습하고 어린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도록 한다. 여러분이 그 노래의 나머지 부분을 부르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맘 주께 맡기면”) 우리가 그분의 축복들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바른 일 힘써 행하면”) 또한 어떤 소절이 반복되는지 (“축복 하리”) 알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듣게 한다. 반응을 보기 위해 각 소절이 끝난 후 잠시 멈춘다. 어린이들이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복습하고 소절 별로 노래 부르는 것을 지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며 그들을 축복하리라는 것을 간증한다. ■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임순임 자매

2004년 10월 15일, 그날은 저와 제 아들 조성제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스러운 약속을 맺기 위해 물로 침례를 받았던 날입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제 마음에 스며들었던 그 따스함,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도 똑같이 찾아 왔던 그 느낌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약 2년 전의 일로, 잠깐 동안 저희 가족이 미국에 거주했을 때입니다. 미국 유타 주에 있는 UVSC(유타 밸리 주립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일하게 된 남편을 따라 유타 주에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는 선교사들을 보기는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타 주는 주변이 온통 교회 회원들이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중 허양희 형제님이 계셨는데, 당시 유타 주에 있는 한인 지부의 회장님이셨습니다. 허 형제님은 저희 가족을 자주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교회에서 열린 노년의 모임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접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마음에 와 닿았던 것 중 하나는 성직자 없이 회원들의 봉사로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회원들의 모습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어 매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문과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교회가 좋다는 것은 느꼈지만 적극적으로 개종하려는 결심을 하지 않은 채로 아들 성제의 여름 방학을 맞았습니다.

성제가 방학을 하자 저희 가족은 미국 일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드넓은 미대륙을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만남

을 거듭하면서 저는 유타 주에 사는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맑은 영혼을 가진 유타 주 사람들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느꼈고, 너무나 선하고 깨끗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 아들이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로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저는 교회 선조들의 신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 정리된 도로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옛날에 길도 없는 그 곳을 매서운 추위 속에서 걸었다는 이야기에 저는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타 주에 돌아와 시내에 있는 개척자와 손수레 부대 동상을 보았을 때 절로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곳이구나 ...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선교사들과 복음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저는 성경을 읽으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창세기를 넘기는 것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준 물몬경이라는 책은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물몬경을 읽었을 때 ... 그 느낌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것은 진리다!' 라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후에 침례를 받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훌륭한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하면 할수록 인생에 대한 표준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 아들도 복음 안에서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



위: 임순임 자매와 조성제 형제 침례식, 왼쪽: 미국 일주 여행 중인 임순임 자매 가족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

사람 많기로 소문난 서울 신도림 지하철역. 출근길에 걸음을 재촉하던 사람들이 한 번씩 힐끗 눈길을 준 곳은 양복 차림으로, 아니면 긴 치마를 입고 커다란 가방을 메거나 끌면서 모여든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다. 선교부 내 모든 지역에 지하철이 있다는 서울 서 선교부는 이동하는 날이면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모여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인사와 안부를 묻는 영어와 한국어가 지하철역 내를 웅성웅성하게 만든 지 30여 분이 지났을까. 선교사들은 어느새 흩어져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와 사람들과 기적이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떠났다. 이제 신도림 지하철역의 기이한 풍경은 다시 6주 후를 기약하게 되었다. 이번 달에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서울 서 선교부를 소개한다.

링우드 회장이 함께한 서울 서 선교부의 시작, 그리고 지금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링우드 자매와 저는 한국에 돌아와 우리 훌륭한 회원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봉사하는 이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일 훌륭한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신앙심 깊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만드는 기적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국 서울 서 선교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1979년 7월 1일, 서울 서 선교부가 설립되던 시기에 저는 서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에프 레이 하킨스 서울 선교부 회장님의 보조(AP)였습니다. 새로운 선교

부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마련하는 하킨스 회장님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장님과 함께 짚던 그 지역에서 지금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립 당시 지역 범위는 서울 서쪽 지역과 안성, 수원, 청주, 대전을 포함한 일부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관할 지역에 약 1470만 인구가 살았고 교회 회원은 3천여 명이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지역 경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저는 이 지역에서 그간 일어났던 성장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현재 서울 서 선교부는 설립 당시와 거주 인구는 같지만 관할 지역은 작아졌습니다. 인천, 강서, 안양, 서울 남, 수원, 서울 영동 스테이크를 관할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관할 지역 면적이 가장 작은 선교부일 것입니다.

현재 저희 선교부에는 108명의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장로가 90명, 자매 선교사가 14명인데, 한국인 선교사는 단 9명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부에는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세 팀이 있습니다. 선교부 사무실에서 봉사하는 트립 부부와 미군 지방부 담당 선교사인 개먼 부부, 그리고 전임 선교



서울 신도림 지하철 역에서 만난 서울 서 선교부 선교사들

사는 아니지만 복지 선교사로 김용일 장로님과 박재항 자매님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봉사하는 기쁨 중 가장 큰 것은 제가 전임 선교사(1977년~1979년)로 봉사할 때 함께 교회에 참석했던 회원들이 지금도 충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봉사할 때 동반자와 저는 어떤 가족을 찾았고, 함께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홍장석 형제님과 그분의 세 자녀들인데, 이들은 1978년에 개종했습니다.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첫 번째 주에 저는 그 가족 중 가장 어렸던 자녀가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저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나머지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인천에서 봉사할 동안 동반자와 제가 찾았던 개종자들을 통해 현재까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100여 명에 이



개먼 부부(가운데)의 가정의 밤. 이날 봉천 와드와 신림 와드 선교사와 구도자들이 개먼 부부의 가정의 밤에 함께했다. 맨 오른쪽에 미즐리 부부 선교사는 올 7월부터 개먼 부부 선교사 후임으로 서울 서 선교부에서 봉사할 계획이다.

룹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선교 사업은 기적의 사업입니다. 저희는 헌신적인 한국 성도들이 있기에 더 많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한국에 와서 그들이 확인한 하늘의 힘은 바로 미군 지방부 회원들의 기도였다. 은퇴한 전역 군인 출신의 부부 선교사가 오기를 바라는 지방부 회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개먼 부부가 한국으로 온 것이다. 현재 개먼 장로는 지방부 회장단으로, 개먼 자매 선교사는 복음 교리를 가르치는 부름을 수행한다. 이들은 또한 한 달에 두 번씩 영어권 회원들의 성전 방문을 돕고, 구도자와 신회원들을 돕기 위해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일한다. 선교부 내 전임 선교사 숙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개먼 장로는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맛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베풀 줄 아는 한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했을 때 가족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의 마음을 알기에 저희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충실한 신앙과 참된 간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그 밖의 요인들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 선교부 부부 선교사

개먼 부부

서울 서 선교부에서 영원한 동반자와 선교 사업을 하는 세 부부 선교사 중에서 개먼 부부는 매주 가정의 밤에 선교사와 구도자를 초대한다. 한국어로 대화할 수는 없지만 개먼 부부만의 방법으로 사랑과 간증을 전하는 그 가정의 밤은 항상 개먼 자매가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로 시작한다.

개먼 부부의 가정의 밤

4월 24일 저녁, 개먼 부부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와 봉천 와드에서 온 선교사들과 구도자들이었다. 라자나와 샬러드가 놓인 저녁 식사에서 시작한 가정의 밤. “구원의 계획”이라는 비디오 시청과 개먼 부부의 짧은 간증, 간단한 순서를 가진 짧은 시

간이었지만 부부의 사려 깊은 마음과 손길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그 마음을 담아 늘 똑 같은 폐회 찬송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며 가정의 밤을 마쳤는데, 이 노래는 부부가 유일하게 한국어로 부를 수 있는 찬송가라고 한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한다는 것

대개 부부 선교사는 전임 선교사들과 다르게 봉사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도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먼 부부의 경우, 이들은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서 기후가 따뜻한 곳에서 봉사하고 싶었는데 건의하는 지역마다 부부 선교사들이 이미 있어서 소망하는 곳으로 갈 수 없었다. 부부는 차츰 부름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교회 본부로부터 한국에서 봉사하라는 소식을 받았다.



서울 남 스테이크 영어 뮤지컬 “신앙의 발자취” 중

선교 사업에 매료된 사람들 - 부지런한 서울 남 스테이크

영어 뮤지컬

“위드 갓, 에브리씽 이즈 파서블!(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황량한 솔트레이크 계곡. 실망하여 말을 잃은 개척자들에게 브리검 영 회장이 힘 있게 외치자 객석에 앉아 있던 회원들이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바로 서울 남 스테이크에서 열렸던 영어 뮤지컬 “신앙의 발자취” 중 한 장면이다. 이 뮤지컬에 출연한 배우들은 영어 회화반 반원과 복음 토론을 하고 있는 구도자, 새로운 회원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이다. 영어 뮤지컬은 서울 남 스테이크가 벌이는 선교 사업 활동 중 하나다. 회원들이 연출과 스텝을 맡아 봉사하며 이들을 위한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작년부터 매 스테이크 대회에서 구도자와 선교사들의 공연이 상연되었고, 이 공연단은 이제 네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 공연은 올 가을에 열릴 스테이크 대회 토요일 모임에서 만나 보게 될 것이다.

“위대한 스테이크” 만들기

서울 남 스테이크는 “성스러운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성도가 됨”이라는 비전으로 모든 지도자와 회원들이 더 넓고 튼튼한 하나

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슬로건이 “위대한 스테이크”이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시온을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계획들은 대부분 선교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다. 허병석 스테이크 회장은 서울 남 스테이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교회 모임이 바로 선교 활동이며 모든 회원이 다 선교사라는 원리에 기초를 둡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지 항상 선교 사업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테이크 대회를 비롯한 스테이크 행사에서는 항상 맨 앞의 네 줄은 구도자와 선교사를 위한 자리로 비워둔다. 각 와드 감독은 회원들과 접견과 협의를 통해 구도자를 소개하도록 권장하고, 전임 선교사들은 6주에 한 번씩은 각 보조 조직 활동에 참석하여 선교사에 대해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 선교 사업을 담당하는 고등평의원으로 두 명의 형제가 봉사하며 영어 뮤지컬, 영어 마을, 선교 전시회, 음악회, 인터넷을 활용한 선교 사업, 선교 사업 관련 소책자 발행 등을 진행한다. 서울 남 스테이크 지도자들과 회원들의 이런 노력은 70%가 넘는 신회원 보유율로 확인할 수 있다.

신림 와드의 기적 만들기

신림 와드 회원들은 모두 매일 5분씩

와드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이 만나는 구도자들, 새로운 회원들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도로 간구한다. 그들의 집 벽에는 와드 선교사들이 나눠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과 그 옆에 비회원 친구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여 있다. 매일 경전을 15분 이상 읽는 것도 선교 사업을 위해서이다. 이 숙제들을 내 준 사람들은 와드 선교사들이다. “일요일마다 각 보조조직에 참석할 때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구도자를 소개하도록 와드 선교사들이 권유하고 회원들의 노력을 계속 확인하며 격려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까지 선교책임자로 봉사했던 최선명 형제의 말이다. 성찬식 안내와 침례식 준비, 침례복 준비, 기록, 새로운 회원과 우정 증진, 매달 두 번씩 대리 침례 의식 참석, 선교사 복지 관리 등 와드 선교사들의 활동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여한다. 회원들의 기도와 와드 선교사들의 부지런함, 선교사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하늘에 닿았는지 이런 노력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나고 그들 스스로 친구들을 소개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림 와드로 모이고 있다. 최선명 형제는 “기적은 엄청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함께 노력했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그간의 기쁜 변화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스테이크의 선교 사업 방향과 회원들의 노력이 만나 신림 와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40여 명이던 활동 회원이 올 해 4월에는 8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줍니다. 게다가 사심 없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므로써 자신의 삶 또한 향상됩니다.”(고든 비 힝클리,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318쪽) ■

새로워진 선교 사업 도구들

갈수록 바빠지는 세상 속에서 더욱 긴박하게 해야 할 선교 사업. 이 사업을 위해 교회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한다.

전도용 카드

선물을 제공하는 카드들

물문경 한 권, 구주의 성역을 담은 '하나님의 어린양' 비디오 또는 우리의 행복한 모토인 '영원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비디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실린 전도용 카드. 이 카드는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하도록 권유하기 전에 구도자들 스스로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한국 관리 본부 배부과에서 100장 단위 포장당 2,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왼쪽부터 물문경,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어린양 전도용 카드.

새로 추가된 전도용 카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전도용 카드에 '행복한 가족이 되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이라는 소책자를 제공하는 카드가 추가되었다.

새로워진 전도용 카드 구도자 지원 절차

위 네 가지 전도용 카드에는 구도자들이 무료 자료를 문의할 수 있는 무료 전화 번호와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소개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 무료 전화 번호는 각 지역의 선교부 사무실과 연결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배포되는 전도용 카드에는 전국이 하나의 번호로

통일되어 있다. 이 무료 전화 번호는 한국 관리 본부 배부과 전화 번호이다. 근무 시간 외에도 자동 응답 장치를 통해 언제나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배부과는 신청한 주소로 무료 자료를 우편 배송한다. 신청 무료 전화 번호는 080-777-1441이며, 이메일 gift@ldschurch.or.kr로도 신청을 받는다. 교회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도록 준비 중이다.

배부과는 접수된 구도자 자료를 한국 선교사 훈련원 담당자에게 보내게 된다. 이는 각 지역의 선교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무료 자료를 받아 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담당자는 또한 무료 자료를 받은 구도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여 자료를 잘 받았는지, 더 알아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일도 담당한다.

아울러 한국 선교사 훈련원 담당자는 구도자 자료를 구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선교부에 전달한다. 선교부는 해당 지역의 선교사에게 연락하여 구도자와 접촉할 수 있게 한다.

행복한 가족이 되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

새로 나온 소책자 '행복한 가족이 되는



새로 추가된 전도용 카드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은 말 그대로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 해야 할 간단한 방법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냄', '대화를 향상시킴', '가치관을 강조함'까지 세 가지 큰 제목으로 나뉘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구도자와 회원들에게 교회가 추구하는 가족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이 소책자는 거의 전면에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있다. 이 사진들의 주인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가족끼리 매우 닮았다. 실제로 이들은 이 책의 내용대로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후기 성도 회원들이다. 서울 지역의 회원들 중 여러 가족들이 이 책을 만드는 데 무료 모델이 되어 주었다. 가족의 행복이, 가정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이 얇은 책 한 권이 전해주는 따스함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려 오는 향기가 될 것이다.



'행복한 가족이 되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 소책자

너희는 특별하다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이자현 자매



여름비가 스산하게 내리던 작년 8월 10일. 태어나서 그토록 숨죽여 울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그 전에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수영장에서 와드 청남 청년들과 함께 활동 모임을 하던 중 역원으로 참석한 친 오빠가 물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다친 일이 일어났을 때이다. 외상이 없어서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오빠는 계속 통증이 있다고 했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오빠가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빠는 그때 영화에 나오는 10초맨처럼 방금 했던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에 100번도 넘게 같은 대답을 해 주어야 했다. 오빠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 기도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버지와 병원으로 가서 CT촬영을 할 때에도 나는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했다. 말

그대로 눈물이 복받쳐 올라왔다. 오빠를 잃게 될까봐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다. 주님께 오빠가 적어도 가족은 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교회 안에서 신권 지도자로 봉사 할 수 있게 기억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렸고,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전해드렸다. 그렇게 10분이 지났을까? 조금씩 눈물이 멈추어졌다. 얼어있던 가슴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들 듯 따뜻해졌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곧 이어 그 빈자리에 위로의 영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말로선 표현 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 모든 게 잘 되리라는 확신이 내 가슴속에 가득히 차 있었다. 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오빠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주셨다. 나는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주일 이 지난 뒤 오빠는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지금 오빠 이선기 형제는 서울에서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다. 가끔 휴가를 얻어 집에 오는 오빠를 보며 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기도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게 된다. 내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려다 이런 일도 겪어 봤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대, 직장, 학교 등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경험과 간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도움은 여러분의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리아호나 기자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문: 지혜의 말씀에 얽힌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간증
 사진: 본인 사진(증명 사진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 속 현장, 즉 이야기와 관련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권장합니다)
 기한: 8월 25일까지

예수님에 대한 어린이들의 간증, 그 마음을 담은 그림

12월에 실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로 초등회 어린이들의 간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

과 순간, 어린이의 간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짧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그린 그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초등회 역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부문: 예수님에 대한 초등회 어린이의 간증이나 간증을 담은 그림
 사진: 본인 사진(증명 사진이 아닌 것)
 기한: 10월 25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2)

독신 회원이 되면 지금까지 겪어온 것보다 앞으로 겪을 고난들이 더욱 더 많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주님과 나 사이 유일한 대화의 끈인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안양 스테이크 금천 2와드 정기현 형제



침례 받은 지 1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간증과 가르침들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강한 응답과 간증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항상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은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와드에서 청소년 축제인 “모두 다 사랑하리” 발표 준비를 할 때였다. 우리 와드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모임인데 그 동안 청소년이 많이 없어서 지난 8년 동안 이 모임을 못하다가 우리가 8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거였다. 청소년 장기 자랑과 연극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 과연 할 수 있을까? ’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진전이 없었다. 발전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회장단들 모두 실망하고 낙심했었다. 하지만 청남 청년 회장단에서 기도하기를 권유했고, 우리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주님께 ‘ 우리의 능력을 축복하셔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라고 간구했다. 그때 마음속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이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연습을 계속해도 우리의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발표 당일.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는 잔뜩 긴장했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 함께 기도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웠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났다. 연극을 하면서 대사 한마디 한마디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느꼈다. 연극이 끝나고 와드 회원들은 모두 일어나 말 그대로 기립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연극을 한 우리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이 영을 느꼈다고 나중에 이야기 하셨다. 나는 이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신 한번 알게 되었다. 기도는 나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더 온유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내 모습을 스스로 보고 느낀다.

인천 스테이크 답동 와드 최해림 자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 경험 중 나의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은 작년에 새벽 세미나를 시작할 때 일어났다. 학업에 한창 바쁘고 힘들어 하던



어느 날, 새벽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복음을 배운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당시 고3이었던 나에게 단 몇 분의 아침잠은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했다. 걱정이 되었다. 두려움과 의심이 들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마음들을 없애 달라고 기도드렸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새벽 세미나를 통해 내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 이후로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감당해야 하는 눈꺼풀의 무게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방법이 생겨 나를 도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그것보다 큰가

지역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 대전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신춘 음악회
- 부산 서 지방부
지방부 대회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 부산 스테이크 대회
부산 종교교육원 졸업식
- 서울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상호부조회 창립기념 행사
- 서울 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 서울 북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내외 방문
신촌 와드 박기웅 형제 개인전
신촌 와드 만학도 김이환 자매 졸업 기사
- 전주 스테이크
군산 미군 지부 연합 친목 모임
- 안양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 청주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이 뜨이고 이불을 걷어 차낸 후 욕실로 곧바로 갈 수 있었다. 성큼성큼 욕실 문으로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은 하나 남게서 나의 의심을 없애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신 것이라 생각했다. 그 이후 힘든 학교 생활 속에서 좌절하는 친구들을 위로할 때 같은 처지인 내가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다. 세미나리 교사이신 백봉욱 형제님이 항상 일깨워 주셨던 말 “너

는 특별하단다.” 이 말은 이제 나의 간증이 되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9명/해의 2명)



류종하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대전 선교부



전소연 자매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부산 선교부



박대천 장로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부산 선교부



전승철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대전 선교부



박동석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부산 선교부



최정근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풍 와드
대전 선교부



박명화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부산 선교부



안성원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템플스퀘어 선교부



신지은 자매
부산 스테이크
신정 와드
부산 선교부



최웅현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뱅크버 선교부



이미숙 자매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서울 선교부

b 8월의 크리스마스

리아호나 정기 구독자 여러분께 8월의 크리스마스를 선사합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마련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8월호 리아호나와 함께 여러분 가정에 배달됩니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회복”,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이 세 가지 영상물이 담긴 DVD입니다. 모든 리아호나 정기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이 자료는 8월호부터 신규 구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배부됩니다. 아름다운 영상에 담긴 복음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DVD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Finding Faith in Christ, 54041 320), “회복”(Restoration, 54742 320), “행복은 어디 있는가”(Finding Happiness, 00244 320) 이 세 영상물이 실려 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포항 지부 회장: 정외곤(전임: 이종한)

마산 스테이크

남해 지부가 사천 지부로 개칭됨
사천 지부 회장: 도재왕(전임: 도재왕)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감독: 백상봉(전임: 안경일)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감독: 최준영(전임: 이성열)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륜 와드와 잠실 와드가 송파 와드로 통합 개칭됨
송파 와드 감독: 최기동(전임: 송파 와드 최기동, 오륜 와드 김정기)
천호 와드와 하남 지부가 강동 와드로 통합 개칭됨
강동 와드 감독: 최상업(전임: 천호 와드 조학현, 하남 지부 최흥기)